10.15686/fkl.2021..54.427 OPEN ACCESS

퀴어 문학/비평의 독자는 누구인가
:『대도시의 사랑법』 수용자의 의미실천과 문화정치

백종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임동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과 ‘독자 없는 독자론’
3 ‘수용자로서 문학 독자’라는 빈틈
4 소설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쟁점과 연구 방법
5 『대도시의 사랑법』 독자의 수용 양상과 의미실천
6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독자들의 다종다양한 의미실천을 토대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새로운 퀴어 문학 비평의 인식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2018년 무렵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학장의 퀴어/페미니즘적 재편 과정에서, 비평은 독자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제 독자는 기존의 낡은 문학을 쇄신하고 새로운 한국 문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체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퀴어 문학 비평은 원론적인 층위에서 독자를 요청할 뿐, 실제 독자의 독서 경험을 비평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듯 보인다. 이 글은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이 상상하는 독자의 형상을 검토하고, 실제 독자에 대한 인식이 누락된 한국 문학장의 '독자 없는 독자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학제적 실험을 시도한다. 우리는 문학연구와 문화연구가 공통적으로 소설의 '수용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박상영의 소설집『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 양상과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실제 독자들의 이질적인 '소설 읽기'를 기반으로, 이 글은 기지의 억압을 재확인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문학 텍스트를 통한 자기변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국문핵심어: 퀴어, 퀴어 문학, 독자, 수용자, 학제적 연구,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1 들어가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어떤 '찬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2019년 제10회 젊은작가상 심사위원이었던 문학평론가 황종연은 대상을 수상한 박상영의 소설「우럭 한점 우주의 맛」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남겼다. "「우럭 한점 우주의 맛」은 퀴어 서사로서 내용이 확실하다. (…) 동성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북돋우는 소설로서「우럭 한점 우주의 맛」은 한동안 최고의 자리

를 차지할 것 같다."[1] "최고"라는 수식어를 동원하여 박상영의 작품을 '상찬'하는 황종연의 이 발언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가 이 "확실"한 "퀴어 서사"를 읽을 독자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여전히 시스젠더-이성애자로 상정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찬사'에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the natural)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성애와 달리, 동성애라는 '특이한' 성적 선호란 시스젠더-이성애자의 "공감"과 "이해"를 요하는 것이라는 식의 사고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박상영의 같은 작품을 해석하는 문학연구자 김윤정의 글은 황종연의 심사평과 나란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병독(竝讀)을 통해 퀴어 문학에 대한 몇몇 비평과 연구가 설정한 예상 독자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까닭이다. 그는 「우럭 한점 우주의 맛」이 "성소수자와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을 구체적 일상을 통해 보여 (…)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이 작품의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소수자 개인의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인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2] 이와 같은 김윤정의 주장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은 존재한다. 퀴어가 현실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원가족과의 갈등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만으로 작품과 연구가 공히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김윤정의 설명은 그러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시스젠더-이성애자를 박상영의 소설 및 자신의 연구를 읽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특히 그가 박상영의 재현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향한 커밍아웃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진이의 인터뷰 연구[3]를 반복적으로 참조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현실 속 퀴어의 '날것의' 목소리가 박상영의 소설 속 재현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견주어

1 황종연, 「심사평」, 박상영 외, 『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9, 390쪽.

2 김윤정, 「퀴어 소설에 나타난 가족 갈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243-244쪽.

3 김진이,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17.

보고 이를 통해 연구의 의의를 찾으려는 서술 전략은 결국 이 연구가 퀴어라면 익히 알고 있는 고통을 시스젠더-이성애자 주류 사회에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버틀러(Judith Butler)는『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에서 "비평은 다른 삶의 양식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삶이 규제받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썼다.[4] 비평은 기지(旣知)의 억압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퀴어의 삶을 살 만한 것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영속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퀴어가 겪는 사회적 억압의 확인은 비평의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며, 그러한 억압이 존재하는 지금-여기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의식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비평의 작업은 시작된다.[5] 현재 한국 문학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신경숙 표절 사태,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2017년 페미니즘 비평 담론 활성화, 2018년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의 약진"[6]이라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 위에서, 예의 질문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과거와는 판연히 다른 새로운 문학성과 비평의 도구를 발명해 나가는 이 도정에서 작가, 비평가, 독자 사이의 관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시로 노태훈과 김건형의 비평을 대비해 볼 수 있다. 박상영의「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논하는 자리에서 노태훈은 퀴어를 재현하고 해석해 온 한국 문학의 관습이 지극히 시혜적이고 혐오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그저 멀찍이서 관조해 왔을 따름이라고 고백한다. 주목할 것은 노태훈이 이 통절한 '반성문'에서조차 '우리=한국 문학장'과 '그들=퀴어'를 계속 구분하면서, 끝끝내 퀴어를 다시 한국 문학장의 외부에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황종연이나 김윤정과 마찬가지로 노태훈 역시 자신의 글을 읽을 예상 독자

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14쪽.

5 Jose Esteban Muñoz, "Introduction," *Cruising Utopi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p.1; 미셸 푸코, 오르트망 심세광·전혜리 역,「비판이란 무엇인가」,『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동녘, 2016 참조.

6 인아영,「시차(時差)와 시차(parallax)」,『문학과사회』제32권 제3호, 문학과지성사, 2019, 11쪽.

의 범위 안에 퀴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7]

반면 김건형은 현재 한국 문학장이 퀴어 문학을 해석하기 위해 동원하는 몇몇 비평적 개념들이 지나치게 낡고 고루한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비평(가) 공동체의 쇄신과 새로운 해석적 도구의 발명을 요청하면서, 퀴어의 정동을 다룬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황인찬 시의 제목을 인용한다. 기존의 문학성이 특정한 "지역, 계급, 학력, 신체, 문화, 젠더, 섹슈얼리티, 연령, 장애성 등의 위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위계를 공고화하는 데 복무해 왔다고 할 때, 김건형은 그러한 기존의 한국 문학장을 향해 이렇게 묻는다. "이제 (…) 새로운 문학(성) 위에서 새로운 독자와 서사를 함께 읽을 적절한 독해의 도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8] 여기에서 그는 정확히 퀴어 독자의 존재를 지시하고 있으며, 비평(가) 공동체와 '함께'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주체로 그 퀴어 독자를 소환한다. 노태훈과 김건형이 "우리"라는 대명사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문학장의 형질 변화와 더불어, 바야흐로 "독서 대중이 만들어 낸 공감과 연대의 지평" 위에서 새로운 문학(성)을 발명해 나가는 "독자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 준다.[9]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 (퀴어) 독자를 통해 퀴어 문학/비평의 인식론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이 새로운 문학(성)을 '함께' 일구어 나갈 동료로 (퀴어) 독자를 호명하고, 문학을 통해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독자의 사유를 적극 요청한다는 점은 이미 비평장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인 듯하다.[10] 하지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의심은 독자의 위상을 강조하는 이

7 노태훈, 「깨어 있는 꿈」, 박민정 외, 『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8, 325쪽; 백종륜, 「한국 근대 퀴어 서사의 계보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12쪽.

8 김건형, 「소설의 젠더와 그 비평 도구들이 지금」, 『문학과사회』 제32권 제3호, 문학과지성사, 2019, 27, 47쪽.

9 소영현, 「퀴어의-비선형적인, 복수의-시간」, 『크릿터』 제1호, 민음사, 2019, 77쪽.

10 김요섭, 「한국문학장의 뉴노멀과 독자 문제」, 『반교어문연구』 제58호, 반교어문학회, 2021 참조.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다소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박상영의 소설을 읽는 전기화나 최윤정 등의 글은 독자를 마치 비평가의 분신처럼, 비평가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동원하는 일종의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처럼 활용하는 듯 보인다.[11]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의 실제 감상이 아니라, 비평가의 감상을 대신 표명하고 전달하는 가주어(假主語)로 '독자'라는 기호를 활용하는 이러한 관습적인 경향은 분명 문제적이다. (2) 나아가 우리가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문학이 요구되며 그 새로운 문학은 독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정작 독자의 사유를 비평의 언어로 번역해 내는 방법을 새로이 창안하는 일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대략 2017~201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의 약진"이라는 문학장의 재편 양상 속에서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당당히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받는 박상영 소설[12]에 대한 비평들을 경유해, 동시대 퀴어 문학/비평이 상상하는 독자란 과연 누구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자를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호명하는 비평계의 경향, 즉 '독자 없는 독자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퀴어 문학/비평의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독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시작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소영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퀴어 재현물이 그간 누구를 독자로 상정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13]을 이제 거꾸로 비평을 향해 돌려줄 때가 되었다. 퀴어 문학 비평은 그간 누구를 독자로 상정해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선 제2장에서는 박상영의 소설에 대한 비평들을 메타-비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퀴어 문학 비평이 상정하는 독자의 형상이 다양한 매체들과 '더불어' 퀴어 문학을 읽고 사유하는 지

11 전기화, 「내가 나의 실패에 대해 말하겠다」, 『문장 웹진』,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3205 (접속일: 2020.06.27); 최윤정, 「소설이라는 스탠드 업 코미디」, 『실천문학』 제131호, 실천문학사, 2019, 218쪽.

12 이철주, 「표정 없이 실패한 울음들의 기록」, 『릿터』 제15호, 민음사, 2018, 191쪽.

13 소영현, 앞의 책, 95쪽.

금-여기 현실의 독자들과 다소 괴리되어 있으며, 비평이 그러한 실제 독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이 '독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거론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독자 없는 독자론'의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 '독자 없는 독자론'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해 인문학/비평의 방법(론)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으로써 '퀴어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국문학 내의 독자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검토하고, 실제 독자의 주관적이고 이질적인 반응들에서 돌출되는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는 새로운 인식론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제4장은 문화연구 전통에서 발전한 수용자 연구가 소위 '본격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아 온 정황을 논의한다. 우리는 국내의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에서 공히 공백으로 남겨진 듯 보이는 독자들의 실제 소설 수용 양상의 '차이'를 연구와 비평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실제 독자 인터뷰를 분석하고, 기존 비평이 포착하지 않았던/못했던 독자들의 다양한 의미 실천과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보여 주고자 한다. 그간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이러한 학제적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는 독자의 사유를 통해 거듭 갱신되는 퀴어 문학 비평의 인식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과 '독자 없는 독자론'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이라는 기념비적인 글에서 오혜진은 2015년 신경숙 표절 사태와 이를 둘러싼 문학 권력 논쟁이 극적으로 드러낸 "엘리티즘적 계몽주의, 가부장주의, 시장패권주의, 순문학주의" 및 소수자에 대한 '재현의 윤리'를 고민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문학의 "체질"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다종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의 세계를 향유하며 지식과 교양, 정치와 윤리 및 쾌락 원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젊은 독자"들에게, "새롭게 갱신되는 지식과 정동, 윤리와 정치에 무관심한 '이성애자-남성-지식인'들의 문학(사)은 이제 현실에 대한 아무런 생산적 설명도 하지 못하는 구

시대적 유물이거나 시대착오적 양식으로 간주된다."[14] 한국 문학의 '젊은' 독자가 문학이라는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만 지적·문화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온갖 매체로부터 온갖 자원을 취한다는 오혜진의 지적은 이 글이 발표된 2016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2021년에도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퀴어 문학 비평은 어쩐지 다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김건형은 박상영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해석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망해 버린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꿋꿋이 내뱉는 박상영 특유의 '자조적인' 농담에 주목하면서, "농담하는 퀴어라는 신인류의 등장"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15] "박상영이 일관되게 보여 주는 (…)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를 언급할 때면 반복적으로 "회자"[16]되는 김건형의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된 맥락에는,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학장에서 "동성애를 소설의 소재로 다루는 일에는 얼마간의 비장함이 필요했"다[17]는 전사(前史)가 깔려 있다.[18] 이 소설이 퀴어 영화 감독인 화자를 통해 영화/예술에서 퀴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메타-퀴어서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성애/퀴어를 재현하는 한국 문학의 재현 문법을 과감하게 거스르는 박상영 식 위반의 제스처를 "농담하는 퀴어라는 신인류의 등장"이라고 부른 명명법에는 분명 적확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박상영의 소설을 협의의 '문학사'라는 닫힌 체계 안에 위치시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 문학의 독자는 더 이상 문학만을 향유하는 '충성심' 넘치는 존재가 아니며,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적 재현물을 섭렵하면서 '초국가적인' 차원의 퀴어

14 오혜진,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 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91-92, 100, 103쪽.

15 김건형, 「알려지지 않은 농담의 역학과 예술가의 이름」, 『문학과사회』 제31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18, 210쪽.

16 김나영 외,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제47권 제3호, 창비, 2019, 382쪽.

17 김형중, 「이 계절의 소설 선정의 말」, 문학과지성사 블로그, 2017; http://moonji.com/monthlynovel/14018/ (접속일: 2020.06.27).

18 김건형, 「2018, 퀴어 전사」, 『문학동네』 제25권 제3호, 문학동네, 2018 참조.

감수성을 함양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19] "농담하는 퀴어라는 신인류의 등장"이라는 표현이나 이것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인용되는 비평의 '관습'은 시대착오적인 것 내지 사태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문학의 독자가 정말로 문화적 재현물에서 "농담하는 퀴어"라는 형상을 마주한 적이 없을까 묻고 싶다. 이와 관련해, 비극성을 강조하는 한국 문학의 전형적인 퀴어 재현과 거리를 두는 '발랄하고 명랑한' 세계를 박상영 소설의 한 특징으로 파악한 뒤, 김조광수의 퀴어 영화가 보여 주는 '명랑성'을 떠올리는 문학평론가 이경진의 발언은 시사적이다.[20] 비평가 역시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한 명의 독자라고 한다면, 이경진의 발언은 한국 문학의 독자가 퀴어 예술을 감상함에 있어 매체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향유, 비교, 해석을 수행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한국 사회가 퀴어를 혐오해 온 가장 큰 명분인 HIV 담론을 선취하고, 퀴어 (사회)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혐오까지 정면으로 본다"는 김건형의 평가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21] 이러한 그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문제가 있는데, (1) 먼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국 문학의 독자는 HIV/AIDS를 재현한 (문학이 아닌) 문화적 재현물을 이미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 또한 동시대 퀴어 소설의 '새로움'을 강조함으로써 작품을 고평하는 관습적인 해석의 태도[22]란 기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퀴어 문학의 역사를 (의도치 않게) 비가시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비록 HIV/AIDS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작품이자 지극히 트랜스혐오적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당장 떠오르는 예로 「대도시의 사랑법」보다 약 30년 앞선 1988년 발

19 조혜영, 「트랜스내셔널 퀴어 정체성의 다중적 시간과 (비)가시성」, 『여/성이론』 제22호, 여이연, 2010; 백종륜, 「한국, 퀴어 문학, 역사」, 『여/성이론』 제41호, 여이연, 2019, 151-152쪽.

20 박상영·이경진, 「이 계절의 소설 인터뷰」, 문학과지성사 블로그, 2017; http://moonji.com/monthlynovel/14018/ (접속일: 2020.06.27).

21 김건형 외, 「계간평」, 『문학동네』 제26권 제2호, 문학동네, 2019, 530쪽, 강조—인용자.

22 한계, 「퀴어가 특수하지 않은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자음과모음』 제45호, 자음과모음, 2020, 344쪽.

표된 장정일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를 들 수 있겠다. 김건형은 또 다른 글에서 1992년에 발표된 채호기의 「슬픈 게이」 연작을 "한국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퀴어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한 재현"[23]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장정일의 동일한 작품이 1980년대 당시 트랜스젠더를 의미했던 '게이' 주인공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 역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층위를 두루 염두에 둘 때, '새로움'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해석 전략은 지금-여기 독자의 문화 향유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것일뿐더러, 지나치게 쉽게 반례가 제시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전략은 작품의 연대기적 기술을 시도하는 특정한 문학사적 맥락에서라면 분명 유의미하다. 하지만 퀴어 문학 비평이 독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인식론을 만들어 나가는 (김건형 자신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그리 유용한 비평 도구가 되지 못하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 문학만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낡은' 독자의 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끌어 오는 지금-여기의 '새로운' 독자라는 상이 개입될 때, 지금까지 박상영의 소설을 비롯한 한국 퀴어 문학에 관해 이루어져 온 몇몇 평가들은 재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인성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영화나 드라마,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중 매체의 감각[이] 현실의 감각과 조응하며 재현의 장을 확장하는" 지금의 국면에서, 문학을 배타적 영토로 획정하면서 사적(史的) 새로움에 몰두하는 듯한 비평은 이미 시효 만료된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인성에 따르면, 이제 한국 문학에 필요한 것은 "실제 독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습득한 거의 무한대에 이르는 이야기들의 스키마에 근접하는, 즉 "문학적 언어를 다시금 일상의 보편적 언어에 접근시키며 새롭게 마찰시키는" 직관적이고 '스키마적인 재현'이다. 예컨대 박상영의 소설처럼 "실제 독자와 만나는 언어", "구체적이고 감각화된 언어"에서 다른 매체와 대적할 문학의 경쟁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24]

23 김건형, 「2018, 퀴어 전사」, 359쪽.

24 박인성, 「얄팍하고 한갓된 세계로의 귀환」, 『문학과사회』 제31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18, 26, 34, 38쪽.

이러한 박인성의 주장은 독자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한국 문학이 처한 존재 조건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봄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상상하는 지금-여기의 독자란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스키마적인 언어/재현과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견주어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언정, 텍스트에서 (과도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없는, 혹은 그러한 의미 발견을 향한 욕망이 없는 존재로 규정되는 듯하다는 점이다.[25]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박인성이 말하는 "실제 독자"가 정말로 '실제 독자'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실제 독자'는 자신의 경험, 지식, 쾌락을 기초로 퀴어한 요소가 극히 적은 작품에서조차 끝내 퀴어한 요소를 발견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퀴어 판타지'를 발명하는 영광"을 누리는 까닭이다.[26] 결국 박인성의 비평은 "실제 독자"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독자'의 경험이 누락되어 있는, '독자 없는 독자론'의 형상을 띤다. 그리고 바로 이 '독자 없는 독자론'이야말로 현재 퀴어 문학 비평이 맞닥뜨린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건형은 오혜진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의 한 대목을 경유해, 군대라는 동성사회적/동성애혐오적 공간에서도 BL이라는 퀴어 서사의 독서 경험을 활용하여 "이성애규범적 일상의 맥락을 부적절하게 파열시키[고] 퀴어 정동으로 대체"하는 퀴어 독자의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 있다.[27] 그럼에도 그의 비평에서 못내 아쉬운 점은 그가 퀴어 미학의 핵심 요소로서 독자성(readership)을 도출해 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문학 텍스트 '바깥'에서 '실제 독자'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퀴어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텍스트 '안'에서 퀴어 '인물'의 '가장 이상적인' 독서-삶 피드백의 경험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김건형의 비평 역시 부득불 '(실제) 독자 없는 독자론'이라는 계열에 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퀴어 문학 비평은 어떻게 이 '독자 없는 독자론'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25 위의 글, 38-39쪽.

26 오혜진, 「'퀴어 판타지'를 발명하는 영광」, 핀치, 2019, https://thepin.ch/think/p7nu3/daydream-7 (접속일: 2020.05.11).

27 김건형, 「'퀴어 신파'는 왜 안 돼?」, 『크릿터』 제2호, 민음사, 2020, 24-25쪽.

설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촌극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박상영의 「재희」를 둘러싼 어떤 '짧은' 논쟁이 그것이다. 황현경은 김봉곤과 박상영의 소설에 대해서라면 자신은 오혜진과 김건형에게 차근차근 배워 가는 학생에 불과하며, 따라서 "학생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질문을 던져 보겠다고 말한다. 그가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러하다. 박상영의 「재희」는 20대 초반이라는 격정의 시기를 함께 공유한 (a) 게이 남성 화자와 (b) 이성애자 여성 '재희'의 우정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은 (a) 화자가 대장균에 의한 요도 감염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자신과 애인을 가리켜 '더러운 똥꼬충들'이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경험과 (b) 재희가 임신중단수술을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비윤리적인' 성생활이 여자의 몸에 가장 해롭다는 식의 '훈계'를 들어야 했던 경험을 나란히 배치한다. 그리고 이 병치를 통과해 소설은 "재희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 좆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재희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8]라는 서술로 나아간다. 그런데 황현경이 보기에 이처럼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이 겪는 각자의 특정한 억압과 차별을 서로 교환 가능한 것인 양 나란히 서술하는 태도에는 어떤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 작품들을 가져다 '띄운' 우리들이 그 A/S까지 마저 맡아야 상도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남성 인물/작가와 "'같은(?) 퀴어'이면서도 '여자'로 쉽게 대상화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어떤] 레즈비언 독자"는 이러한 식의 서술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29]

김건형은 이러한 황현경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게이와 여성의 고통을 경쟁시키며 남성 퀴어와 페미니즘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황현경은 남성 소설가의 남성 퀴어 서사라서 레즈비언 독자에게 젠더적으로 '불편'하다는 독자의 한 인상평을 무책임하게 인용하며 그 퀴어 서사를 페미니즘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퀴어 일반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젠더 권력과 격차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인 것은 지당하지만, 황현경의 질문은 퀴어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

28 박상영, 「재희」,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45-46쪽.

29 황현경, 「필드와 데스크」, 『자음과모음』 제40호, 자음과모음, 2019, 241쪽.

결 구도로 논의를 몰고 가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효과 모두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황현경의 질문에 답하자면, "남성 퀴어 중심적인 퀴어 담론과 이성애 중심적인 젠더 담론을 모두 넘는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교차성이다."[30] 황현경의 원문이 과거 자신이 발표한 비평[31]을 향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 다소 위악적으로 '반성'하면서, 그 비판이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몰이해보다는 그저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가해진 것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결국 자신이 남자라는 것 자체를 '사죄'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김건형의 강경한 비판은 기실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한 편의 촌극 같은 사태에서도 여전히 생각해 볼 거리는 존재한다. 우선 (a) 황현경이 한 레즈비언 독자의 '실제' 감상을 자신의 질문에 짧게 삽입할 때, 김건형은 이를 "독자의 인상평을 무책임하게 인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b) 김건형은 황현경이 퀴어 대 페미니즘이라는 잘못된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퀴어 페미니즘의 연대의 역사를 환기하면서 이러한 '거짓' 구도를 기각하려 하며,[32] 이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차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a) 먼저 황현경이 제시한 레즈비언 독자의 의견을 가리켜 김건형이 이를 '인상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의견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상평이라는 말이 작품에 대한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관적인 인상만을 전달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됨을 고려하면, 이러한 김건형의 발언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독자의 인상평을 무책임하게 인용한다'는 김건형의 발언에서 '무책임하게 인용한다'가 황현경의 위악적인 태도를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인상평'이라는 표현은 독자의 이 의견이 충분한 숙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포한다. 그런데 이 레즈비언 독자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추측'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이 독자의 발언은 아마도 첫째, 작

30 김건형, 「비평의 젠더와 그 사적 패턴들이 지금」, 『문학동네』 제27권 제2호, 문학동네, 2020, 132쪽.

31 황현경, 「소설이라는 형식」, 『문학동네』 제25권 제1호, 문학동네, 2018.

32 김건형, 「비평의 젠더와 그 사적 패턴들이 지금」, 132-133쪽; 미미 마리누치, 권유경·김은주 역, 『페미니즘을 퀴어링!』, 봄알람, 2018 참조.

품 내적인 차원에서 게이 남성이 간호사로부터 혐오 발언을 듣는 상황과 헤테로 여성이 의사로부터 임신중단수술 요청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각각의 인물에게 어떠한 무게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둘째, 임신중단과 관련해 섹슈얼리티의 통제가 "연령, 혼인 여부, 국적, 지역적 조건, 장애, 질병, 경제적 상황, 가족, 이주 상태, 성적 실천의 내용,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촘촘하게 위계화된 교차적 억압으로 나타난다"[33]고 할 때, 이러한 억압의 교차성에 대한 세심한 고민 없이 남성 작가가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의 피억압 경험을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너무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 역시 뒤섞여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레즈비언 독자의 '불편함'이란 소설 속 화자가 들어야 했던 욕설과 재희가 들어야 했던 훈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일방적으로 겨눠지는 차별적인 혐오 발화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34]는 식의 '순진한' 해석과의 거리 두기인 것처럼 읽힌다. 요컨대 "페미니즘과 퀴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식으로 패턴화된 연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35]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이 레즈비언 독자의 불편함을 구성하는 요체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김건형이 이미 다른 글을 통해 이러한 "패턴화된 연대"의 위험을 지적한 바 있으며,[36] "퀴어와 페미니즘을 적대적 정치학으로 재구성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맞서, 「재희」를 통해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 사이의 교차적 연대를 읽어 내려 시도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37] 퀴어 페미니즘이라는 상상된 연대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열들을 포착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예민한 정치적·윤리적 의식을 가진 이 비평가는 그러나 실제 독자의 '불편함'이 비평을 경유해 문학장에 기입될 때 그 불편함의 진의

33 이유림,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39쪽.

34 인아영, 「항상 나와 함께 있어줘」,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2019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 2019, 171쪽.

35 인아영, 「시차와 시차」, 14쪽.

36 김건형, 「소설의 젠더와 그 비평 도구들이 지금」, 41쪽.

37 김건형, 「지금, 교차하는 퀴어 서사들이 여는 시간」, 『문학동네』 제26권 제4호, 문학동네, 2019, 105쪽.

를 곱씹기보다는, 그것을 그저 인상평 정도로 여기고 만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그토록 요청해 왔던, 퀴어 문학의 새로운 인식론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퀴어 독자의 감정(과 정동)일지도 모르는데도 그렇다. 결국 이 인상평이라는 '오명'은 현재 한국 퀴어 문학 비평의 뚜렷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인 '독자 없는 독자론'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 준다.

(b) 그렇다면 독자를 통한 인식의 갱신 없이,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은 「재희」의 문제되는 구절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단순히 화자와 재희 사이의 우정이 지니는 특별함을 언급하며 "패턴화된 연대"를 반복하는 서술을 넘어,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는 예로는 강지희와 김건형 등을 꼽을 수 있다.[38] 양자의 해석은 대동소이한데, 요약하자면 화자와 재희의 성적 실천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재생산적 시간으로부터 일탈한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공히 가부장제 사회의 제재 및 병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39] 그런데 여기에는 재생산 제도가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에게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작동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추측'한 레즈비언 독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불편함까지 고려한다면, (ㄱ) (성적 선호와 무관하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압력[40]이 여성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 제도의 내부로 포섭하려 한다는 점과, (ㄴ) 동일한 힘이 미래와 희망의 기호인 '아이(the Child)'를 재생산하지 않는/못하는 게이 남성을 사회의 생존가능성(viability)의 대척점에 위치시킴으로써 재생산 제도의 외부에 배치한다는 점[41]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ㄷ) 나아가 게이 남성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은 다

38 강지희, 「멜랑콜리 퀴어 지리학」,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김건형, 「지금, 교차하는 퀴어 서사들이 여는 시간」.

39 강지희, 앞의 책, 317쪽; cf. Judith Halberstam, "Queer Temporality and Postmodern Geographies," *In a Queer Time and Pla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40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역,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

41 Lee Edelman, "The Future Is Kid Stuff," *No Futur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른 남성 주체들의 내면에 동성애혐오/공포(homophobia)를 설치함으로써 남성들을 재생산하는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바, 게이 남성은 재생산 제도에서 배제되는 듯 보이지만 꼭 필요한 타자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내부에 함축되어 있는, 재생산 제도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42] 이를 염두에 두면, 재생산 제도라는 권력이 화자와 재희를 어떻게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지, 또 그 규제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 제도 자체를 다시 강화하는 '같은' 효과를 생산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의 '같고 다름'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인상평'이라는 오명을 씌울 정도로 '짧은'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평가는 바로 그 독자의 사유로부터 어떻게 퀴어 문학/비평의 인식론을 갱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고, 고민해야 한다. '독자 없는 독자론'이라는 멍에로부터 탈출하는 일이 긴요하다.

3 '수용자로서 문학 독자'라는 빈틈

현재 한국 문학장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들은 대부분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 연구를 전공한 이들이며, 외국문학을 전공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비평가가 인문학을 자신의 학문적·비평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문학 비평이 실제 독자의 목소리, 즉 '수용자로서 문학 독자'를 비평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까닭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뷰 연구와 같은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인문학/비평의 방법(론)을 '퀴어링'한다면, 그리하여 실제 독자의 목소리를 연구와 비평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간 한국 퀴어 문학 비평이 고군분투하며 마련해 온 해석의 도구와 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 퀴어 문학 비평이 독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도, 독자를 비평가의 분신이나 플레

42 김건형 역시 「재희」에서 게이 남성이 재생산 제도의 구성적 외부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소설의 결말부에서 재희가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재생산 제도에 편입하는 반면, 이성애규범적 시간을 체현하는 데 실패한 화자는 재희가 떠난 자리에서 여전히 재생산 제도의 외부에 남은 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형, 「지금, 교차하는 퀴어 서사들이 여는 시간」, 107쪽.)

이스홀더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만연한 상황을 개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결국 문학연구라는 분과학문 고유의 해석적 도구들을 잠시 내려놓고, 학제적 접근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한번 실험해 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퀴어 문학을 둘러싼 미지(未知)의 독자의 경험 및 쾌락을 문학장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기지(旣知)의 억압을 재확인하는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둘러 덧붙이건대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 및 비평이 '독자'를 전적으로 도외시해온 것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야우스(Hans Robert Jauß)의 수용미학과 이저(Wolfgang Iser)의 영향미학이 차봉희 등을 경유해 한국 문학장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 역시 꽤 축적되어 있는 편인 것이다. 예를 들어 김영미, 김경숙, 이연승, 이형권, 이경림 등은 야우스와 이저의 논의를 원용해 '독자'를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읽어 내려 시도한 바 있다.[43]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한편으로 (1)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포독자(implied reader)를 "이미 비평가 자신과 동류 수준의 사람으로 잠정 설정"[44]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 김영미, 김경숙, 이연승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김경숙과 이연승은 "창조적 독자 혹은 비평가"[45]라는 "특수한 독자의 입장"[46]을 전제한 뒤, 텍스트의 빈자리(Leerstelle)를 채워 나가는 독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문학에 대한 기존의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포착하는 것을 논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독자를 단일한 배경지식을 가진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43 김영미, 「무의미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국제어문』 제32호, 국제어문학회, 2004; 김경숙, 「윤동주 시의 '독서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이연승, 「해체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어문연구』 제71호, 어문연구학회, 2012; 이연승,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본 오규원 시 연구」, 『어문연구』 제81호, 어문연구학회, 2014; 이형권, 「이육사 문학의 독자와 기대지평의 문제」, 『한국언어문학』 제85호, 한국언어문학회, 2013; 이경림, 「'근대'의 체감」, 『구보학보』 제28호, 구보학회, 2021.

44 박인기, 「독서문화의 형성과 비평의 작용」, 『독서연구』 제24호, 한국독서학회, 2010, 23쪽.

45 이연승,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본 오규원 시 연구」, 213쪽.

46 김경숙, 앞의 글, 9쪽.

전술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독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평가가 그러한 독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선지식 내지 선판단이 독자들에게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수용미학과 영향미학 자체에 내재된 한계이기도 한데, 양자는 김천혜와 정기철 등이 지적하듯이 독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러한 이론적 독자와 달리 다종다양한 '주관적' 반응을 드러내는 실제 구체적 독자의 경험을 연구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다.[47]

한편 (2) 이형권과 이경림은 텍스트가 읽히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독자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연구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형권은 지금-여기의 독자를 "일제치하라는 역사적 사실이 주는 중압감에서 좀 자유로워진 존재"로 상정하고, 이육사 문학을 저항문학으로만 해석해 온 기존의 기대지평으로부터 벗어나려 시도한다. 그는 현재 "전문 독자"와 "일반 독자" 모두 이육사의 시를 저항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은 총합에 의해 존재하는 실제 독자"가 다양한 만큼 텍스트 해석 또한 다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이형권은 "역사적 체험을 하지 않은 독자"들은 "텍스트가 스스로 의미의 구조망으로 유도하는 내포독자"처럼 이육사 문학의 미학적 차원을 짚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48] 그러나 내포독자는 "작자가 텍스트를 작품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텍스트의 구조 내부에 설정한 일종의 선험적인 독자"[49]로서, 일반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가 입장에서의 "이상적 수신자" 혹은 "이상적 독자"라는 점[50]을 고려하면, 상술한 이형권의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형권은 작가 이육사

47 김천혜,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 제8호, 한국독일어문학회, 1998, 245쪽; 정기철,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독자」, 『독서연구』 제16호, 한국독서학회, 2006. 45-46쪽.

48 이형권, 앞의 책, 397, 411-412쪽.

49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37호, 호남문화연구소, 2005, 222쪽.

50 김승환,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론총』 제7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31-32쪽.

가 설정한 혹은 이육사의 텍스트에 함축된 내포독자를, 텍스트가 생산된 시대적·정치적 배경과 무관한 탈역사적 존재로 가정하는 까닭이다. 이와 달리, 이경림은 이인직의 신소설 『귀의성』이 창작되고 수용되던 당대의 문학적·문화적 맥락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이 텍스트가 고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대와 예상을 '배신'하는 순간, 즉 기대지평의 조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착목해 『귀의성』이 가지는 근대성을 새롭게 규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귀의성』을 읽은 실제 독자들의 감상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시간적·자료적 한계로 인해, 이경림의 연구 역시 천정환 등이 포착한 독서사적 변화[51]를 참조해 특정 독자층의 반응을 '유추'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서사 유형에 친숙한가를 기준으로 당대의 독자층을 구분하는 것은 분명 설득력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특정 독자층으로 묶인 집단 내에 실재했던 다양한 차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현숙은 그동안 많은 국문학 연구들이 "내포독자인 독자의 이미지를 텍스트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특히 근대 문학의 경우 남아 있는 기록이 매우 제한적인바 "실제 독자에 접근하고 논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국문학에서의 독자 연구를 "텍스트 안의 이론적 독자에 주목하는 것과 텍스트 밖의 실제 독자와의 상호연관성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대별할 때, 전자에 비해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한계를 떠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2][53] 이처럼 문학 텍스트에 대한 당대 독자의 반응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거나 신문 및 잡지 기록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국문학은 일련의 독서사 연구와 만나게 된다.

---

51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14 참조.

52 오현숙, 「『동아일보』 통계로 본 1930년대 아동과 청년 독자의 책 읽기」, 『구보학보』 제28호, 구보학회, 2021, 387쪽.

53 비슷한 맥락에서 김재경은 리몬-캐넌(Shlomith Rimmon Kenan)의 『소설의 현대 시학(*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을 원용해, 문학연구에서의 '독자' 개념을 (a) "특정한 개인이든 한 시대의 집단적 독자층이든 실제의 독자에 관한 개념"과 (b) "텍스트에 의해 유발되는 해석 과정과 자료의 통합을 나타내는, 텍스트 속에 내포되어 있거나 규약화되어 있는 이론적 구성물의 개념"으로 대별한다. (김재경, 「최인호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64쪽.)

식민지시기 근대 독자의 형성 및 분화 양상을 살펴보는 천정환의『근대의 책 읽기』나, 해방 이후 한국의 특정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서 발달한 독서 문화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천정환·정종현의『대한민국 독서사』[54] 등으로 대표되는 독서사 연구는 문학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텍스트 바깥에 실존하는 실제 독자를 학문적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연구는 이러한 독서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는 베스트셀러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개별 독자들의 '주체적' 선택이 모여 탄생한 결과이기에 "모든 베스트셀러는 사회 성원의 욕망의 잉여 혹은 결여를 보여 주고, 따라서 해당 사회 욕망의 흐름을 관찰하게 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55] 예를 들어, 김경숙과 이은정 등은 1960~199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을 의미 있는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대중' 독자들의 심리 및 욕망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것이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논의한 바 있다.[56] 이와 같이 베스트셀러 연구는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 현상을 통해 "한 시대나 사회상 또는 '감정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천정환이 지적하듯이 "수용자는 젠더, 계급, 인종, 민족, 지역, 세대 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합적 존재"라고 전제하는 문화연구와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 연구에서도 '대중' 독자의 욕망이나 '총체적인' 사회상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과 독서가 맺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이다.[57]

유사한 맥락에서 이용희와 임진하는 당대의 베스트셀러 현상이 특정한 문화

54 천정환·정종현,『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55 천정환,「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 독자의 형성과 전개」,『독서연구』제13호, 한국독서학회, 2005, 218쪽.

56 김경숙,「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독서의 사회사」,『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이은정,「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한국시학연구』제13호, 한국시학회, 2005.

57 천정환,「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 (1)」,『반교어문연구』제43호, 반교어문학회, 2016, 23, 31쪽.

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논의한 바 있다.[58] 이러한 특정 독자 공동체를 고려하는 연구는 베스트셀러 현상을 경유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김옥란, 노지승, 정미지, 김미지, 이주라, 오혜진 등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수행한 일련의 여성 독자 연구는 독서가 명백히 젠더화된 경험임을 분명히 하면서, 책 읽는 여성과 여성이 읽는 책을 '불온'하거나 '저속'한 것으로 낙인찍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59]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여성들의 의견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락시켜 온 역사적 정황에 의해 발생한 한계, 즉 여성의 실제 독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60]를 다양한 방식으로 넘어서려 시도했다. 이들은 신문 및 잡지에 실린 각종 통계 자료, 설문 조사, 독서 감상문, 독자 좌담회, 독자 투고란 등을 비롯해, 보다 가까운 과거의 경우 독서 하위문화 경험을 회고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실제 독자와의 인터뷰[61]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나아가 '여성 독자'라고 불리는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연령적 차이 등을 예리하게 인식하면서, 여

58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제4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임진하, 「보편을 분유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읽기」, 『여성문학연구』 제5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59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제13호, 상허학회, 2004;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현대소설연구』 제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미지, 「식민지 조선의 '소녀' 독자와 근대·대중·문학의 동시대성」, 『대중서사연구』 제20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4; 이주라, 「삼중당의 하이틴로맨스와 1980년대 소녀들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9;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60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103-104쪽; 김미지, 앞의 글, 11쪽.

61 이주라는 로맨스 소설 독자들의 독서 경험과 욕망을 살펴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로맨스 소설 연재 및 판매 사이트"와 로맨스 소설 카페 등의 댓글을 참조한다. 또한 오혜진은 자신의 연구가 "1980년대 독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여러 인터뷰이들"에게 빚진 것임을 각주에서 밝힌다. 아마도 이 인터뷰이들의 체험이 본문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듯한데, 사회과학의 인터뷰 방법을 명시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주라, 앞의 글, 87-88쪽; 오혜진, 앞의 글, 250쪽.)

성 독자가 결코 단일하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안정된 범주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 독자가 섹스/젠더, 성적 선호, 계급, 연령, 학력, 장애/질병,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종교, 정치성향 등의 축이 교직되어 형성된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단순히 정체성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온갖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해석의 주체라면, 이 거의 불가지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독자에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다. 작가와 비평가의 예상을 번번이 배신하면서 문학 텍스트에서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독자들의 이 천태만상의 반응을 어떻게 새로운 비평의 자원으로 인정/인식할 수 있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임현순과 김응교는 사회과학의 설문 조사 방법을 원용해 독자와 텍스트의 만남을 살펴보려 시도한 바 있다. 먼저 임현순은 시의 대중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시와 대중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대중 독자를 주요한 논의의 층위로 삼"지만, 판매부수나 베스트셀러 등에만 간접적으로 기대면서 "독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 왔다고 지적한다. 즉 "여전히 대중(독자)과의 유리라는 방법론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것인데, 임현순은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인 설문 조사 방법을 도입해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면서 실제 대중 독자의 "취향과 욕망의 구조"를 규명하려 시도한다.[62] 한편 김응교는 윤동주에 대한 '대중 독자' 혹은 '일반 독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임현순이 설문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하는 것과 달리, 김응교는 "설문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설문의 결과를 재구성하지 않으려 한다"고 명시한다.[63] 그 결과 김응교의 연구는 각 문항에 대해 특정 반응이 지배적일 것이라 예측했던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

62 임현순,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 『한국시학연구』 제22호, 한국시학회, 2008, 303-305쪽.

63 김응교, 「윤동주에 대한 기억」,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330쪽.

다는 사실, 즉 전문가들이 일반 독자의 '실제'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성공하지만, 그러한 반응이 독자의 정체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심층적인 분석에는 다다르지 못한다.

한편 손정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교 문학 전공 수업 수강생들의 독서 반응을 통해, 2010년대 중반 이후 독자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작품에 재현된 남성-여성의 권력 차이와 그에 기초한 젠더 폭력을 이전과 '다르게' 읽는 독자들, "기존의 미학적 규범 내부에서 작품을 감상"하지 않으며 "기존의 소설적 주제라고 인식되어 온 문제들을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는 독자들의 성향 변화에 "젠더 감수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64] 이때 손정수가 교육 현장에서의 독서 반응을 자신의 논의를 지탱하는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문학자가 수행한 독자 연구 가운데 실제 독자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듯 보이는 이 연구가 교육 현장에서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다종다양한 실제 독자의 반응을 오랫동안 다층적으로 고찰해 온 문학교육학의 성과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해석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독서 및 문식성(literacy)은 그 자체로 젠더화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등 실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졌다.[65] 이는 한편으로 교육 현장이 "이상적 독서 공동체나 균질적인 독자"에 대한 상상이 균열되고 파쇄되는 장면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 김미정은 강의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작가나 비평가의 의도와 전혀 배치되는 종류의 반동적인 독해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예상치 못한 반응들"은 일반 독자가 어떠한 재현에 관한 상이한 "'인식-정동'의 회로"를 이미 장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

64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교육적 의미」, 『반교어문연구』 제49호, 반교어문학회, 2018, 142-143쪽.

65 최숙기,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여성 독자와 남성 독자의 반응 양상 및 읽기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독서연구』 제48호, 한국독서학회, 2018; 김세화·최숙기,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의미 구조 분석」, 『독서연구』 제56호, 한국독서학회, 2020.

거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66]

우리는 이처럼 '독자'라는 개념이 현재 퀴어 문학에 대한 비평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단일하고 균질적인 공동체가 아닐 뿐 아니라, '퀴어 독자', '페미니스트 독자', '여성 독자',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독자' 등 다양하게 명명될 수 있는 특정 독자 집단 역시 기실 서로 연대하는 동시에 불화하는 이질적인 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교육학의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개념이 시사하듯이 독서란 인종, 젠더, 계급 등을 둘러싼 특정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규준을 재생산하는 기제이자, 개인 및 집단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기제이다.[67] 이때 사회변혁적 독서[68]를 수행하는 지금-여기의 독자들은 서로 차이 나는 "인지-정동의 회로"를 탑재한 채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하는바, 오드리 로드(Audre Lorde)의 말처럼 이 독자들 사이의 '차이'를 "역동적 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역동적 힘은,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졌을 때, 자아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69] 연대를 단순히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차이'로 인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또한 동행하는 것[70]으로 여길 때, 그리하여 각각의 상황적 독해(situated reading)가 가지는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할 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비평/연구의 인식론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소설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쟁점과 연구 방법

66 김미정, 「아리아드네의 실」, 『문학과사회』 제32권 제2호, 문학과지성사, 2019, 10쪽.

67 이순영,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제1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327쪽.

68 천경록,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제10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69 오드리 로드, 주해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55쪽.

70 담·여름, 「엄살원 1화」 중 여름의 발언, 2021;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VFkI5HuFQyCT311_shbIpgH2NKTTFg (접속일: 2021.10.12.)

이 글에서 우리는 문학 텍스트가 갖는 정치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연구 전통의 수용자 연구를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이는 수용자 연구가 문학 텍스트/독자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특권적인 방법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소설 독자를 '수용자'라는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 이해할 때, 소설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함의와 효과를 더 적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연구는 수용자 연구의 전통에서도 텍스트 해독 연구라는 맥락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소설 독자를 수용자로 이해하는 접근은 이론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질까?

영국 문화연구에서 발전한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시발점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기호화와 기호해독(Encoding, Decoding)」은 기호화 단계와 기호해독 단계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인 상응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명제의 기저에는 수용자의 '능동성',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율성'이 놓여 있다. 홀은 지배 내 담론 구조를 통해 수용자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 혹은 선호된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어떤 사건의 의미를 하나 이상의 '자리부여(mapping)' 속에서 정리, 분류, 할당,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결정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71] 기호해독 과정에서 수용자가 사용하게 될 의미규칙은 언제나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홀은 수용자가 대항적 의미규칙을 따라 자신의 대안적인 준거틀을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함으로써 '대항적 해독'을 수행하는 위치가 존재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해독은 담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의 정치의 출발점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수정은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을 "텍스트를 해독할 때 수용자가 '텍스트 바깥으로부터, 즉 자신의 현실 경험이나 접하게 되는 담론을 자원으로 끌어와 의미를 생산하거나 텍스트를 평가하는 인지적 활동'"으로 정의한다.[72] 수용자는 이제 미디어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호명되는

71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기호화와 기호해독」,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2015, 428쪽.

72 김수정, 「수용자 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언론과 사회』 제18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10, 30쪽.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이며 저항적인 의미투쟁을 벌이는 주체라는 존재론적 함의를 갖게 된다. 이후 문화연구자들은 자신의 담론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들을 나름대로 굴절시키는 대중문화 수용자들의 문화정치에 천착했으며, 나아가 지배문화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텍스트로 재창조하는 하위문화 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제도)문학 텍스트가 이 같은 이론적/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문화연구자들이 종종 수용자 연구에서 이론적 자원으로 삼곤 하는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권력을 빗겨 나가는 주체 실천의 한 양상으로 읽기/독서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다소 의아한 지점이다.[73]

애초에 문화연구는 2차 대전 이후 소비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노동 계급의 소비력 부흥이라는 영국 사회의 '새로운' 국면에서 형성되었다. 텔레비전과 다양한 대중적 인쇄매체 같은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의 계급적 감각을 변화시킴으로써 계급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사회문화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른바 영국의 "미국적 국면"[74]과 함께 보수당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대중/노동계급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 즉 문화주의가 제출된 것이다.[75] 이때 대중의 잠재력과 자율성은 대중문화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된다. 이후 미국 문화연구의 발흥을 이끌었던 피스크(John Fiske)는 한발 더 나아가 대중문화 텍스트가 '다의적인' 것은 바로 미디어 산업의

73 이상길,「미시권력 대 미시저항」,『인문예술잡지 F』 제13호, 문지문화원 사이, 2014.

74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1983*,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p.6.

75 소위 '대문자 문화연구'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문화는 일상적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는 리비스주의 전통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윌리엄스는『키워드(*Keywords*)』에서 문학(Literature)이라는 개념을 역사화하면서 문학을 "특정한 종류의 저술로 특수화하려는 시도"의 불철저함을 논증한다. 이처럼 문학의 위치를 상대화하는 것은 뒤이은 문화연구의 발흥에 있어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담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대중문화 요소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족지(ethnography)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에 개입하는 것은 문화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키워드』, 민음사, 2010, 280쪽).

경제적 논리가 더 많은 수용자들에게 소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연구 실천은 지배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디어 텍스트 분석이나 그 수용 연구에 정향되었다.

국내에서 버밍엄발 문화연구는 주로 언론학 내의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수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학문장을 통한 일정한 굴절을 거쳤다. 굴절의 효과는 국내 학계에 '미디어 문화연구'라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화된 분과학문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문화연구가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피스크 등의 탁월한 연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제도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국내 연구자들이 이처럼 대중문화를 중심에 둔 '비판 커뮤니케이션' 분과로서의 문화연구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와 같은 경계 설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따라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은 동시대 대중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소설이나 시와 같은 인쇄매체 상의 문학 텍스트가 미디어 문화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정연·이기형과 김예란의 연구는 미디어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소설을 다룬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정연·이기형은 이른바 '칙릿소설'의 부상을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조명한다. 이때 소설 텍스트뿐 아니라 칙릿소설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 예컨대 언론 기사나 비평 역시 분석 대상이 된다.[76] 한편 김예란은 "그간 문화연구 분야에서 영상 전자매체나 디지털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 인쇄매체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문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소녀의 재귀적 말하기 문화' 분석을 위해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과 여성 청소년들이 쓴 인터넷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77] 두 연구의 성과는 오늘날에도 문학이 사회문화적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다종한 방법으로 경유할 수 있는 텍스트이자 컨텍스트임을 예

76 이정연·이기형, 「칙릿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사회』 제17권 제2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09.

77 김예란, 「소녀성과 육체의 미디어화」, 『미디어, 젠더 & 문화』 제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18쪽.

증한다.

두 연구가 주로 다루는 소설은 칙릿소설과 인터넷소설로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다는 점에서 문화연구의 대상으로 어렵지 않게 정당화된다. 그런데 문화연구가 문학장에서 고평받는 소위 '제도문학'에 해당하는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보다 자세한 해명이 요구되는 듯하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소설은 제한적인 엘리트 독자들만을 상대하는 일종의 '고급문화'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으로부터 인간 지성의 정수를 추출하고자 했던 리비스주의와의 절연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문화연구자에게 '순문학'은 무의식중에 자신의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의 문화연구가 언론학의 하위분과로 제도화되면서 문학연구 내의 문화연구적 경향과 일종의 '분업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문학이 무의식중에 문학연구자만의 연구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78] 그러나 오늘날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책읽기를 사회운동으로 체화한 독자"[79]들은 문학 텍스트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재)탄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문학에 속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소설은 철저한 문화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미디어임이 분명하다.[80]

한편 제도문학이 문화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체로 '진보적 텍스트'로 인식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물론 특정 텍스트를 전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분류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문화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의 반동적·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수용자가 어떻게 타협하거나 저항하는지, 또는 텍스트에 담긴 진보적 요소에서 수용자가 어떠한 저항적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보다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피스크가 강조한 것처럼 대중

78 채웅준·김선기, 「학제적 분과학문으로 문화연구 다시 쓰기」,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참조.

79 허윤,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문학과사회』 제31권 제2호, 문학과지성사, 2018, 53쪽.

80 예컨대 2019년을 기준으로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4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이 높은 판매량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화 텍스트는 미디어 산업의 경제 논리의 압력 하에 텍스트의 다의성을 띠며 실제로 경험연구에서 수용자들 역시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해독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중문화적 경제 논리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적인 공간,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용어로 말하자면 '제한된 문화 생산 장(field)'[81]에서 생산된 '의도적으로 진보적인' 텍스트—예컨대 제도문학/순문학이나 독립영화 등—는 그러한 다의성을 띠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장르는 자주 텍스트 분석이나 비평의 대상이 되지만, 수용자가 이를 어떻게 해독하는지는 심층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점에서 기호화 과정과 해독 과정의 비상동성의 전제가 되는 다의성과 관련해, 피스크가 아닌 홀이 강조한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홀의 명제에서는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미규칙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점뿐 아니라, 기호 자체가 가지는 다의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홀은 현실에서 기호가 언제나 외포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내포적 의미가 유동적, 연상적,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며 외연적 의미는 기호에 부착된 '자의적' 의미를 자연화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가 담론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 강조된다. 즉 홀은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원용하는 동시에 기호의 의미가 특정한 시점에 자연화되면서 닫히는 과정을 포착하는 절충주의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기호가 본질적으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진보적 텍스트의 수용에 있어 수용자의 반대적 해독이 반동적이거나 보수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입장이면서도 텍스트의 선호된 의미에 반하는 다양한 결의 수용 양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저항적 해독'과 '반대적 해독' 개념 간의 차이다. 김수정은 "홀의 '반대적 해독' 개념은 분명히 텍스트의 '선호된 의미'를 거부하는 해독으로, 그리고 피스크의 '저항적 해독' 개념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스르는 것으로 그 개념적 차이를 명료화할 것"을 주장한다.[82] 그는 종종 이

81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82 김수정, 앞의 책, 18-19쪽.

두 가지 개념 사이의 혼동으로 수용자의 해독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함의를 더욱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텍스트의 '진보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미 실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자의 의미 실천의 정치적 힘을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대적 결을 가진 동종의 저항적 해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피스크가 기호의 다성성 자체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속성인 동질화하는 힘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저항적 해독/들의 이질적인 집합으로부터 도출하고자 한다. 즉 진보적 텍스트에 대한 진보적 해독의 다양한 결을 드러내는 것은 지배 권력이 피지배자들의 목소리를 단성적으로 축소하는 힘에 맞서[83] 푸코적 의미에서 새로운 권력 관계가 등장하자마자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해 내려는 '다르고자 하는 권력(the power to be different)의 행사'로서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소설 독자들이 보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독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이유이다. 비평가와 독자의 해석 차이뿐만 아니라 독자와 독자의 해석 차이까지 함께 보여 줌으로써 "다른 독자들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텍스트 세계"[84]의 한 단면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심층 인터뷰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비평이 제시한 기존의 해석이 실제 독자의 입장에서 '거부'되거나 '조정'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그러한 거부와 조정이 가지는 문화정치적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 양상을 몇 가지로 분류하거나 일반화함으로써 기존의 비평과 대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 소설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의미 실천은 무한하며, 이는 일반화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독자들의 수용 양상의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 소설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또 담론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과 이론

83 존 피스크, 곽현주 역, 『텔레비전 문화』, 컬처룩, 2017 참조.

84 윤경희, 「어떻게 독자 세계가 될 것인가」, 『문학3』 제3호, 창비, 2017, 69쪽.

적 포화[85]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소설 읽기 실천의 다양한 의미 가능성들을 담론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위치성을 고려해 이론적 자격을 설정했다. 젠더와 성적 지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눈덩이 표집을 진행했는데, 앞서 기존의 비평이 앞세우는 독자상이 대체로 이성애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퀴어로 인식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연구참여자로 삼았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이들이 일군의 고관여 독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외의 독자의 읽기 실천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가능한 한 제도문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섭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계급은 수용자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대상의 위치성 중 하나이며 이 주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를 변수로 포함하기에는 연구가 지나치게 방대해질 우려가 있어 후속 과제로 남겨 두었다. 그 외의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분석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은 기존 독자를 모집하고 각각의 참여자들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1.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나이	젠더	성적지향	직업
A	32	남성	동성애자	대학원생
B	31	남성	동성애자	직장인
C	22	젠더퀴어	팬섹슈얼	대학생
D	29	여성	양성애자	직장인
E	27	남성	동성애자	직장인
F	31	남성	동성애자	직장인
G	35	남성	이성애자	직장인
H	31	여성	이성애자	대학원생

85 이론적 포화란 통계적 표본추출이 아닌 이론적 표본추출을 채택하는 경우, 연구 과정에서 형성되는 범주에 추가되는 자료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5『대도시의 사랑법』 독자의 수용 양상과 의미실천

5.1 하위문화의 재현, 어떤 민족지

연구참여자들이『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에서 출발해 보자. 인아영은 요즘의 독자를 가리켜 "문학 작품을 자신의 삶에 가깝게 끌어당기려는 실천적인 요구를 지닌 독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86] 흥미롭게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일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낯선 게이 하위문화의 재현이『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각자의 상이한 평가와 가장 큰 관련을 맺고 있는 듯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하위문화의 재현과 관련지어 내놓았다. 이러한 평가는 게이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호오보다는 그것과 얼마나 친숙한지에 따라 두드러지게 달라진다. 게이 남성들의 다음 반응을 먼저 살펴보자.

> A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되게 별로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을 받고 나서 왜 그랬는지 시차를 두고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게이의 삶을 보여 준다는 취지인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평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지루하다? (…) 그냥 되게 민족지 같단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민족지를 싫어해요. 단순히 기술적인[descriptive] 것들의 나열처럼 느껴져서. (…) 분명히 소설 안에서 화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이 하위문화의 면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저는 이미 경험한, 뭐랄까 현장에서 계속해서 살아 온, 게이 문화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익숙한 광경들인데. 만약에 게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읽었으면 재미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게 재미가 아주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간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있어서 발을 들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아

86 인아영 외,「독자를 다시 생각한다」,『문학동네』 제26권 제4호, 문학동네, 2019, 144쪽.

니 내가 겪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나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지난한 어떤 경험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 그냥 전반적으로 진부했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 보거나……. 내가 아는 동생, 내가 아는 친구, 들어 봤을 법한 이야기거든. (…) 되게 뭔가 전반적으로 설스러워[87]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이 다. 걸그룹, 술집 이야기도 그렇고 여자 친구랑 동거하고 키스하다가 들키고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설스럽고…….

지루하다거나 진부하다는 감상은 하위문화 내의 자기동일화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 하위문화를 오랫동안 자신의 일상의 한 축으로 삼아 온 이들에게, 하위문화에서 걸그룹을 소비하거나 전유하는 방식과 같은 이태원/종로의 소비공간적 기호들은 이미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퀴어된 도리를 다하"[88]는 충실한 재현에 A와 B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에 값하는 평범성의 귀한 성취"[89]나 "이제껏 드러난 적이 없어 생소하면서도 특이할 것 없는 게이들의 일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던 게이로서의 보편성을 창출한다"[90]는 주장을 넘어서, 그러한 창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의문에 부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비문화와 섹슈얼리티라는 공통된 내기물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이 하위문화가 게이들에게는 자신의 비이성애적 주체성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그것을 속박하는 구성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즉 푸코적 관점에서 하위문화적 실천이 자기 자신의 진

87 게이 하위문화에서 통용되는 말투나 행동거지 등이 충분히 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따라해 어설프게 느껴지는 것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은어.

88 박상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147쪽

89 이경, 「밀레니'을'들이 사는 법」, 『오늘의 문예비평』 제116호, 오늘의문예비평, 2020, 57쪽.

90 성현아, 「이차원의 사랑법」, 『조선일보』, 2021.01.01.

실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스스로를 이에 구속시킨다는 점[91]을 상기할 때, 이 소설에서 게이 하위문화가 재현되는 주된 방식이 가져오는 수행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이가 아니지만 게이 하위문화에 익숙한 '내부의 외부인(outsider within)'의 읽기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C　사실 그 대표적인 배경으로 이태원만 나오는 것도 진짜 정말 단순화한 거죠 모든 거를. 레즈비언 소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홍대 갔다는 말 그렇게 안 나오고. 애초에 레즈비언이나 여성 퀴어들을 위한 이렇게 정말 이미지화된 그런 장소도 잘 없고. 그런데 게이는 이미 있잖아요 이태원이라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한 게 너무 '인싸 게이의 하루' 이런 것 같아서, 그니까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는데 (…) 그런 게이의 상황을 농담 따먹기로 해결을 하는 거는 미국 드라마에 너무 많이 있었고요. (…) 집에서 버림받을 뻔하고 학교 폭력도 당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얼렁뚱땅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D　나는 일단 그 티아라 나오는 「대도시의 사랑법」 초반부에서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 그니까 규호하고 처음 만난 이태원 클럽에 티아라들이 물 탄 데킬라 주는 이벤트 놀러 가는 장면에서, 여기서 갑자기 생각보다 되게 길게 어떤 지칠 줄 모르는 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가 힘들었냐면 아예 불쾌할 정도로 질척한 건 아닌데 좀 너무 귀엽게 쓴 거야. 그런 어떤 그 모에화? (…) 여기서 춤을 추거나 하고 있는 거를 약간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하려고 한 거는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있는 자기를 너무 귀여워하는 게 보여서 내가 살짝 민망했던 것 같은데. 그니까 예를 들면 말투 같은 게. "당장이라도 실명해 버릴 것만 같은

91 이상길,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서의 고백」, 『언론과 사회』, 제27권 제3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19 참조.

> 강렬한 초록 빛깔의 레이저가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커다란 메인 바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도무지 술을 받을 수가 없네?" 그리고 뒤에 "보람아 왜 비틀거려. 천천히 마시래두. 근데 은정이는 어디 갔대니. 아 정말, 나도 모르겠다. 일단 취하고 보자."[92] 게이 클럽 꽤나 갔지만, 이게 모르는 현상은 아닌데, 그냥 쓰는 사람이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써도 되나? 우리의 작태를?

박상영의 소설은 게이 하위문화적 자원을 곧잘 활용한다. 성현아는 "월드컵 노래방과 샤넬 노래방이 있다면 언제나 샤넬 쪽을 택하는 것이 "게이들의 일상""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의 한 대목을 두고 "게이들의 공통성이 버젓이 존재함"을 나타냄으로써 "게이로서의 보편성을 창출"하고 "특수성을 버려야만 이성애가 차지한 보편의 자리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존의 동화주의적인 정치적 믿음이 보편성이 도출됨에 따라 깨진다고 주장한다.[93] 게이 남성들의 하위문화적 일상성의 재현으로 표상되는 이른바 "가볍고 우아한 탈피"는 이러한 보편성의 핵심이다. 이에 앞서 박상영 소설의 '농담'을 중요한 분석 지점으로 삼은 김건형의 비평 역시 궤를 같이한다. 그에 따르면, "퀴어 당사자성의 표명"이 드러나는 박상영의 소설에서 "게이 하위문화적 기호들은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종족성을 재현할 공간을 확보한다." 이 고유한 종족성을 토대로 나타나는 재현은 "낭만화와 비극화를 모두 넘은 퀴어의 세속화"로 표현된다. 예컨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서로의 실패를 조롱하고 낄낄대며 추는 마지막 춤 장면"이 그러한 세속화를 보여 주는데, "취약한 존재가 되라는" 규범적 명령을 가볍게 인정하고 그 패배를 유희하는 농담을 내던짐으로써 그러한 권력의 인용을 벗어난다는 것이다.[94]

이 같은 비평은 소설의 내적 텍스트 분석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수용 양상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재현이 갖는 문화정치적 효과 측면

92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187-188쪽.
93 성현아, 앞의 글.
94 김건형, 「2018, 퀴어 전사」, 381, 384-385쪽.

에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게이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경험해 온 남성들은 주로 그러한 세속화된 하위문화적 실천의 재현이 진부하다거나 '킬링 타임'에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게이는 아니지만 게이 하위문화에 익숙한 퀴어 수용자 C는 이를 "인싸 게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규범적 게이 정체성 내지 실천에 대한 재현을 통해 억압적인 "게이의 상황을 농담 따먹기로 해결"하는 방식은 이미 드라마 등에서 자주 활용되었던 것으로 그리 새로울 게 없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B와 D가 이에 대해 보인 '설스럽다'거나 '민망하다'는 반응은, 그러한 하위문화적 '보편성'이 다양한 퀴어 주체성과 다소 괴리되거나 피상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비평에 따르면 담론 권력이 실패하는 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장면들에 대해, 세속적인 하위문화적 실천에 이미 익숙한 독자들이 그다지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종류의 설명을 요구한다.

여러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농담하는 퀴어' 또는 '게이로서의 보편성'으로 특징화되는 이 소설이 기실 내부의 차이를 충분히 복잡하게 그려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위문화에 몸담은 게이 남성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세속화된 실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로부터 어떤 저항적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이 남성들의 비이성애적 주체성 형성이 한편으로는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짜인 게이 하위문화적 규범으로의 또 다른 예속화라는 이중적 형식을 띠고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분열성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 E　김조광수 감독 영화처럼 게이의 삶을 그려 둔 것 같은?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게이 커뮤니티 말고 일반[이성애자]들이 바라보는 게이에 대한 시각 같은 것들이 그런 거라면 그걸 대중에 호소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풀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그게 잘 이해되고 명확하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고민 없이 당연하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걸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비꼬거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로 등장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의식 없이 그런

> 모습만 유일한 것처럼, 또는 그런 사람들이 과다대표되게 표현하는 것은 좀 높은 차원의 묘사는 아니란 생각이 들지. 워낙 많은 퀴어 콘텐츠가 그런 방식을 쓰니까.

E는 이 소설의 많은 지점에 공감했으며 재미있게 읽었다는 감상을 밝힌다. 그러나 세속화된 하위문화적 실천은 이미 그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익숙한 것이므로, 소설 읽기에서 그것이 지배 규범에 대해 갖는 저항적 지점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 이 반응은 저항적 공간으로 일컬어지는 게이 커뮤니티의 재현이 한편으로는 게이인 스스로를 그러한 게이의 규범적 형상에 구속시키게 된다는 아포리아를 E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의 재현 방식이 가지고 오는 효과, 즉 하위문화적 기호를 중요한 자원으로 삼는 이 소설이 담론적으로 구성하는 정체성에 자신이 일정하게 복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은 퀴어 독자들로 하여금 다소 비판적으로 독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5.2 상상된 독자와 어떤 정치성/들

퀴어인 연구참여자들의 감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연구자가 묻지 않았는데도 '일반 독자', 즉 시스젠더 이성애자인 독자들이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을지에 대한 자신의 예상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앞서 게이 재현에 대한 E의 평가에서 일반 독자의 인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소설은 모종의 퀴어 정체성의 담론적인 구성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의도한 바인 소설의 선호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퀴어 독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인 텍스트이다. 퀴어 독자들은 널리 읽히거나 읽힐 가능성이 있는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문학 작품이 퀴어를 재현하는 방식이 '비퀴어'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나름의 상상을 제시한다. 이들은 일반 독자들의 독해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평가와 구별 짓는다. 즉 독서를 개인적인 행위로 보는 근대적 관점과 달리, 퀴어 소설의 수용자들은 비퀴어 독자들과의 '상상적 대화'와 관계 맺음을 통해 퀴어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C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일기인 줄 알았거든요. 별로 신선하지 않고 흔한 스토리였던 거죠. 근데 많은 비퀴어 독자들은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엿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 비퀴어와 퀴어 독자의 차이가 그 부분이에요. 그니까 그거를 보편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퀴어고, '너무 신선한데? 몰랐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비퀴어였던 거고. 그래서 엄청 평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도 제 주변 퀴어들은 노잼이다, 이반시티[95]다, 일기다라는 식이에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 타겟층이 저는 퀴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작품의 타겟층은 비퀴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퀴어도 재밌게 읽을 순 있겠지만 그리 신선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베스트셀러화 됐다는 게 너무 신선했지, 내용 자체가 막 너무 특이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지다는 사실 아니었어요. (…) 제가 언제 『대도시의 사랑법』 후기 같은 거를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 퀴어를 한 번도 안 만나 본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해요. (…) 비퀴어 독자들은 퀴어들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드러나도 되게 흥미롭게 봐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관음하는 거죠. 그 관음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비퀴어 독자들은 이렇다'라기보다 그들의 후기나 평론이나 해석이나 같은 거에서 약간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거를 퀴어 독자들은 눈치 챌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A 만약에 게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읽었으면, 그냥 어 재미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이런 무해한 문화가? 막 이런 그냥. (…) 저는 아무튼 간에, 텍스트라는 것과 계속 관계

95 게이 남성들이 이용하는 유명 웹사이트. 이곳의 여러 종류의 게시판은 일상적인 대화나 만남을 매개하며 게이 남성들이 게이 관련 픽션을 창작해 올리는 '백일장' 게시판 역시 유명하다.

를 가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남은 게 있죠. 왜 이런 텍스트가 흥행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들? 왜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고? 그런 것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연구에 참여한 퀴어 독자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들은 비극적인 성애화를 지양하고 지극히 '보통'의 경쾌함으로 게이의 '고유한 종족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일반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리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퀴어 독자들은 이것이 '일반 독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데 반해, 비평가들은 일반/이성애자라는 말을 괄호 치고 '독자'라고만 언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퀴어 독자들의 반응은 세속적인 일상 문화의 경쾌한 재현이 지배 담론이 마련하는 '특이성' 즉 취약한 존재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평을 넘어서 생각해 볼 지점을 제시한다. 세속적 퀴어, 그러니까 고유한 게이 종족성이란 또 다른 규범적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유한 게이 종족성으로 칭해지는 것이 현실에서 언제나 잔여를 남긴다는 사실은 게이 독자들의 다음의 반응에서 나타난다.

F [캐릭터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서 몰입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 일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 거 같아요. 전 그래도 이게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일기여도 재밌으면 되지 않나? (…)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너무 분명하고, 모호한 지점이 너무 없긴 하죠.

A 사실은 굉장히 진흙탕이고, 되게 여러 가지의, 뭐랄까 다종의 경험들이 섞여 있고, 그중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 판인데. 그걸 저는 조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이나,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재현할 수 없는 것들,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

을 되게 바라거든요 저는 재현물을 보면서. 그래서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걸 여기서 찾을 수 없어서.

먼저 F가 하위문화적 기호들을 소비하고 일상을 보내는 주인공 캐릭터에 공감하는 즐거움을 표현했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F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밌게 봤어요. 전 박상영 작가를 좋아하는 편인데, 왜 좋아하냐면 되게 변사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게이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 말들, 티아라 어쩌구 그런 게 그냥 웃기니까? 그런 코멘트들? 그런 걸 보는 게 좀 부분 부분 재밌는 것 같고.” 이 평가는 작가의 글쓰기 자체의 매력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그에 더하여 F는 “그걸 듣거나 보는 게 아니라 글씨로 써 있는 건 잘 하지 않는 경험”이라면서 소설, 특히 제도문학이라는 특정한 ‘장르’를 통해 이러한 재현을 접하는 경험 자체가 주는 일종의 ‘저항적 즐거움’을 언급했다. 앞서 진부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던 B 역시 재미있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내놓았다. 이 두 가지 감상은 양립불가능하지 않은데, 게이 하위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 소설의 서사 자체가 진부할 수는 있으나, 박상영 소설 특유의 뛰어난 가독성 역시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재미있고 잘 읽힌다는 측면에서 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그것이 “제한”하게 되는 것, 달리 말하자면 “너무 분명하고, 모호한 지점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A 역시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러워서 재현할 수 없는 게이 커뮤니티 내의 어떤 경험들을 이 소설에서 볼 수 없다며 아쉬워한다. 이 소설이 제시하는 어떤 형상이 모종의 공통적인 ‘보편성’을 끄집어내고는 있지만, 그러한 ‘경쾌하고 발랄한’ 보편성은 실제 게이 독자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특수성, 달리 말하자면 게이 섹슈얼리티에 접합된 특정한 기호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상징권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은 실재하는 그 잔여들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게이 보편성이라는 형상으로부터 탈동일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퀴어의 고통과 비극적 형상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들은 ‘퀴어함’이 열려 있는 질문으로 제시되길 원한다. 김건형은 박상영의 소설을 다루면서 버

틀러를 원용해 "퀴어 예술가들이 '나'의 상실과 패배들을 선취해 재현할 때, "치명적인 지점"으로 퀴어를 재현하던 반복적인 인용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한다.[96]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치명적인 지점'을 타자의 시선이자 일종의 예속화된 동일시로, 즉 권력이 작용하는 지점으로 본다. 따라서 하위문화의 경쾌하고 유희적인 기호와 접합되는 '상실과 패배'라는 퀴어의 세속화된 재현이 규범의 인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이 한편으로는 '퀴어적인 것(queerness)'을 "미래의 재표명으로 열어 두는 것"[97]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일면 타당한 김건형의 비평과 실제 게이 독자들의 '설명요구' 사이의 괴리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C는 이 질문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C　요즘 판타지 웹소설 같은 이런 소설계에서도 항상 브로맨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팔리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브로맨스가 없으면 정말 흥행이 너무 어렵고, 여성 주연이거나 여성만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보여지지도 않는 수준이고. (…) 하다못해 BBC「셜록(Sherlock)」같은 드라마도 굉장히 그 약간 두 남자 주인공의 어떤 텐션이 계속 있고, 그걸 브로맨스로 엄청 팔았거든요. (…) 약간 그런 유들? 뭐 되게 많죠. 퀴어 문학, 퀴어 영화 하면 게이 너무 많고.「콜 미 바이 유어 네임(Call Me by Your Name)」같은 것도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도 게이 서사고. 게이 서사가 인기를 끄는 수준이 시스 헤테로 여성도 좋아하고 양지까지 확 퍼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박상영 작가의 소설이 뭔가의 시발점이 됐다기보다는, 이 많은 문제들의 결합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남성의 얘기에 항상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것들과, 헤테로 여성들이 게이 남성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그런 흐름과, 그리고 뭔가 PC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티피컬한 게이가 아니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들. 그래서 항상 막

96　김건형,「2018, 퀴어 전사」, 385쪽.

97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혐오 발언』, 알렙, 2016, 207쪽.

이태원이나 종로에서 만나는 것들이 등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퀴어 문학을 투고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등단이 되고 상을 받고. 다 결과인 거죠.

예민한 정치적 감수성을 지닌 젊은 독자들이 영미권발 서사를 통해 교양과 유머를 갖춘 '모범적인' 게이 형상에 익숙해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원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여러 텍스트 사이를 횡단하는 독자들의 창조적 읽기는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현재의 독자는 장르와 미디어를 넘나드는 '텍스트의 밀렵꾼'들이다.[98] 우리가 인터뷰한 독자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문학사나 소설사라는 닫힌 체계 내에서 '새로움'을 상찬하는 관습적 해석을 넘어, 문학 수용자의 차원에서 독자들이 생산해 내는 다양한 텍스트의 의미들을 살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앞서 A가 언급한 박상영 소설의 '무해함'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G　나는 주위에 게이 친구도 잘 없고, 특히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는 잘 없어. 그래서 약간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사실 있어. 왜냐면 그게 다 일인칭으로 썼고, 구구절절하고 지리멸렬한 밤생활이라든가 연애, 잘 안 되는 삐걱거리는 것들을 되게 재밌게 써서, 아 다 저렇게 [이성애자들과] 비슷하게 놀기도 하면서 되게 특수성이 있네, 저러고 노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놀라운 부분들, 그런 낯섦에서 오는 묘한 게 있었어. (…) 이것도 그들만의 문화인가, 코드가 있나? 나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레퍼런스로 남은 것 같애 그 소설이. 게이들의 삶, 일상 같은 거. (…) 내 생각엔 한국 동시대적인 시공간인 게 큰 거 같애. 2010년대 한국 내 또래의 남자 메인 캐릭터가 나오는 콘텐츠는 못 봤어. (…) 한국 드라마에도 잘 없지. 「멜로가 체질」에서 나온 게 좀 놀랐고. (…) 되게 피부로 느껴졌어. 「프렌즈」든 미드든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 나는. 거긴 보편적이고 열려 있

98 Henry Jenkins, *Textual Poachers*, London: Routledge, 1992.

고 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폐쇄적인 곳인데 대중문화 전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애. 있기야 있었겠는데 인기를 끌진 못했던 것 같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한 기억이 없어.

H　저는 주변에 사실 퀴어 친구들이 있고 해 가지고 친구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평소에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퀴어로서 연애를 하고 이럴 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책을 읽어서 좀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 친구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탠데도 어머님이 교회 갔다 오시면 동성애 나쁜 거다 고쳐야 되는 거다 그냥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차마 용기도 못 내고. 그런 지가 꽤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질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조금 상상을 하게 되니까. (…) 퀴어 소설을 몇 개 읽어 봤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인데, 사랑이라는 게 설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애를 하고 또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이런 약간 멘탈을 공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소설들을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 책은 그냥 연애부터 설렘, 사랑 이런 걸 단계별로 다 고루고루 다루고 있는 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이성애자 여성인 H는 이 소설을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소설"과 구별하면서 "당당하게 다니시는" 게이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동성애자 친구에게 공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성애자 남성인 G는 게이 하위문화의 특수성을 알

아 가는 쾌락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연애처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모두 공유하는 일상성의 보편성을 인식한다. 비극적인 성애화를 지양한 게이의 고유한 종족성의 묘사가 '일반 독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기존 비평들은 적확한 데가 있으며 이 소설집은 분명 이 지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게이 독자인 A가 예측한 것처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퀴어 세계는 일반 독자들에게 '무해한 문화'로 나타나는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퀴어 서사를 꽤 접했던 G가 이 소설에서 새로운 인상을 받은 까닭을 동시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적 맥락 때문이라고 명확히 지적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게이 하위문화를 표상하는 일련의 소비주의적 기호들과 그 기호들로 가득 찬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게이 스펙터클을 구성한다. 하위문화에 익숙지 않은 이성애자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 '무해한' 게이 스펙터클과 관련해, 다음의 비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대한은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서울은 옥죄는 과거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사랑의 조건 그 자체"로 그려진다고 쓴 바 있다.[99] 마찬가지로 김건형 또한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이태원이 "퀴어 헤테로토피아"로 묘사된다고 분석한다.[100] 즉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존재하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주는 일상적인 감각과는 전혀 다른 시간성과 파토스가 지배하는 게이들만의 무해하고 안온한 유토피아로 이태원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태원을 낭만화하는 서술은 소설에서 이태원이 PL(people living with HIV)을 향한 게이들 사이의 노골적인 혐오, 멸시, 조롱이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축소한다. 나아가 자유로운 도시와 억압적인 지방이라는 늘 진실인 것만은 아닌 이분법[101]을 재생산할뿐더러 게이 커뮤니티를 서울의 종로와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상상하는 한계를 내비친다. 즉 이태원이라는 무해한 게이 스펙터클에

99 조대한, 「항, 돌아온 혹은 떠나간 사랑」, 『웹진 문화 다』, 2019;http://www.munhwada.net/home/m_view.php?ps_db=letters_ko&ps_boid=226&ps_mode= (접속일: 2020.06.23)

100 김건형, 「퀴어 신파는 왜 안 돼?」, 26쪽.

101 Judith Halberstam, "The Brandon Archive," *In a Queer Time and Place*, p.35.

서 모종의 정치성 내지 윤리성을 길어 내려는 시도는 게이 커뮤니티 내에 실존하는 폭력성을 덮어 가리는 동시에, 퀴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비가시화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게이 스펙터클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성애자 독자를 염두에 두고 비평이 씌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퀴어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말을 걸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퀴어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는 과오를 '우리'는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102] 독자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비평은 때로 탈정치적 형식을 의도치 않게 승인하고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5.3 호평과 혹평 사이: 자기변형과 문화정치

이처럼 기존의 비평들이 제시하고 있는 박상영 소설의 정치성은 모종의 독자상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 바깥의 독자들은 종종 이와는 상이한 독서 양상을 보여 준다. 독자들이 특정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다양한 즐거움과 획득/생산하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읽기가 갖는 정치성/들은 비평가가 제시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소수자성을 중요한 주제로 삼는 박상영의 소설은 다양한 문화정치적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양한 위치성과 경험을 지닌 독자들은 이를 다루는 방식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단일하게 환원될 수 없는 의미실천을 수행한다. 따라서 독자들이 구체적인 지점에서 실제로 어떠한 읽기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경유함으로써 이 소설이 갖는 복합적인 정치적 효과들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절에서 「재희」와 「우럭 한점 우주의 맛」(이하 「우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극명히 대비되는 평가를 통해 독자의 읽기 실천을 통해 생산된 의미가 갖는 문화정치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독자는 소설을 왜 읽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독자가 어떤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미치는 모종의 효과, 예컨대 즐거움과 같은 정동적 차원에서 정보 획득 등의 인지적 차원에 이르는 효과를 원하기 때문이다. 문화정치적 함의는 소설

102 더글러스 크림프, 김수연 역, 『애도와 투쟁』, 현실문화, 2021, 369쪽.

이 독자에게 어떠한 수행적 효과를 낳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연구참여자들의 소설 읽기를 푸코(Michel Foucault)의 주체화 연구의 중요한 축이었던 자기배려 실천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푸코는 언젠가 "자신의 그림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다면, 왜 화가는 작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작가가 책을 쓰는 일과 독자가 그 책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중요한 '경험'으로 이해했는데, 자기 자신의 진리의 생산을 통한 자기변형을 중요한 미학적 실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푸코가 후기 저작에서 다룬 독서 후에 얻게 된 진실을 자기화하기 위한 글쓰기로서 '휴폼네마타(hupomnemata)' 역시 이 맥락에 자리한다.[103]

독자, 텍스트, 사회(타자)라는 삼항구도를 떠올려 보자. 이 구도에서 독자는 먼저 텍스트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적 해독, 타협적 해독 또는 저항적 해독 등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생산한다. 즉 독서 행위는 일차적으로 텍스트의 해독을 통해 생산된 진리와의 관계 맺기인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자신의 진리를 통해 이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설은 사회적 텍스트인바, 독자가 텍스트에 내재된 앎의 의지에 맞서 생산한 진실은 다른 독자들을 상상하거나 텍스트에 관해 소통하는 등의 일을 통해, 자기 배려인 동시에 타자의 인도라는 양방향적 성격을 띠게 된다. 독자는 텍스트를 매개로 타자와 (상상적으로) 관계 맺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스스로가 변형될 개연성을 지닌다. 권력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순환 체계에서 '자기변형'은 자기배려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변형은 독자가 책을 읽는 하나의 이유다.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먼저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주목했던 「재희」에서 드러난 여성과 게이의 소수자성과 상호이해 가능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 E　여성을 되게 어떤, 하나의 도구나 수단처럼,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 도구화돼서 등장한단 게 재희가 임신하고 낙태하는 과정에 대한 느낌이었던 것 같애. 임신과 낙태가

103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자기 성병 검사하는 거하고 좀 엮이는 플롯이었는데 (…) 그러면서 여성의 사랑과 병치시키면서 보여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자긴 임신 걱정은 없지만 성병 때문에 비뇨기과를 가고, 임신에 대한 걱정이나 그 위험 가능성으로 산부인과 가는 재희의 모습을 같이 보여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걸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감수성이 없단 생각이 들었어. 그게 좀 성병 검사하고 같이 다뤄질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C 「재희」라는 단편에서 계속 그런 식의 구도를 잡아요. 시스 헤테로 남성이 가부장제의 원흉이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시스 헤테로 여성과 시스 남성 게이가 같은 선상에 놓인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너무 단순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공감이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 줬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구도화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쉽게 연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낙태를 다룬 것도 그렇고. 재희가 그렇게 쉽게 툭툭 털 수 있나? 그래서 쉽게 끝나나? 그렇게 쉽게 끝나고 재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하나? 그니까 그게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 눈에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 그리고 거기서 재희를 도와주는 게이 남성의 위치가 너무나, 우리는 여성의 친구고 같이 남성을 욕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너무 퉁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거의 형성이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살아온 사회적 성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같이 남성을 욕망한다 해도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E와 C는 「재희」에서 드러나는 게이 남성과 이성애자 여성 간의 이해 구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본다. 이 구도에서 억압의 경험을 야기하는 공통된 근원은 가부장제 권력이다. 그러나 화자가 성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의료권과 관련된 어려움과 재희가 산부인과에서 겪게 된 일련의 난관들이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질적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누군가의 고통이 더

크다거나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억압에는 분명한 교차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차하는 억압 범주들이 단순히 억압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그 억압 경험의 특이성들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직관적인 반감, 즉 화자의 눈에 비친 것처럼 재희의 임신중단이 단순히 가부장제 권력에 대한 '쿨한 저항'으로 쉽사리 환원되지 않으리라는 독해는 이 같은 억압 경험의 특이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복잡다단한 층위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배면에 깔고 있는 것이다.

D　어떤 그 되게 보고 싶은 연대를 그냥 썼다 그런 느낌이었어. 딱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작품인 것도 알겠고. (…) 즉각적으론 조금 의심했던 것 같애. 진짜 그런가? 그니까 알게 되나? 산부인과를 방금 다녀온 나의 여자사람 친구를 보고, 비뇨기과에 다녀온 내 게이 친구를 보면, 아 여자로 사는 거 좆같고, 뭐 게이로 사는 거 만만치 않게 좆같고 그걸 알게 되나? 그런 의심이 좀 즉각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또 아니기도 하니까. 혐오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또 되게 다른데. (…) 결과적으로 이 끝난 우정에 대해서 소회하는 방식 같은 게 (…) 의심스러운 거야. 그니까 재희라는 이런 아주 근사한 친구인 인물이, 정말 난년인 인물이 산부인과에서 그 지랄하고 나오는 거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뭐 대기업 다니는 애랑 결혼했더라 뭐 이거하고 이 사람이 묘사할 때는 이게 마치 굉장히 반대의 현상이거나 뭔가 순응하거나, 어떤 그런 차별과 혐오에 정면으로 대항하거나 또는 좀 측면으로 대항하거나 할 수 있었던 시절하고는 어느 정도 단절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친했던 것치고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떤 수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헤테로노머티비티를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결혼에 재희가 포섭되는 것[을] (…) 좀 더 치밀하게 따라가 볼 만한 뭐가 없었나. (…)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 여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좆같은지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는 기분인데, 산부인과에서 자궁 모형 훔치고 이 난리

> 를 칠 때 통하던, 여자로 사는 게 진짜 좆같구나 게이로 사는 것만큼이나 좆같구나라는 깨달음이 딱 거기에서 멈추고. (…)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많은 삶이랑 비슷해져 가지고 더 이상 다른 표정을 가지지 않는 어떤 삶처럼, 그냥 어떤 어른들의 삶처럼 [결혼한 재희를] 이렇게 두고, 그 이전의 우리의 우정만이 아주 뭐 블루베리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해 두고 약간 이런 게, 재희의 그 이후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나? (…) 그리고 어떤 여성으로 사는 것이 좆같고 어떤 게이로 사는 것이 좆같고 이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애. (…) 갑자기 재희로부터 어떤 보편의 어떤 차별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도 살짝 무례한 거 아닌가? 그니까 나는 누가 나하고 그렇게 깊고 질척한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알게 된 거야 걔가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좆같은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다 여잔가 또?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의 예리한 주장처럼, 가부장제는 스스로를 지속시키기 위해 호모포비아와 미소지니를 필요로 한다. 남성의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은 동성애적(homosexual) 욕망과 연속적이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동성애자와 여성을 혐오하는 순환적 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적 체계 내에서 권력 작용이 언제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게이 남성들은 동성사회적 욕망이 발생시키는 배제 압력에 맞선 복잡다단한 타협 전략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한다.[104] 이성애자 여성 역시 가부장제의 구조를 그대로 체화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경험은 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타협의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

D는 재희라는 캐릭터에 이 같은 역사가 게이 남성의 시선에서 멈추어 버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재희」는 화자가 재희와 함께 살던 집에 돌아와 "모든 아름

104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임동현, 「직장 내 남성 동성사회와 게이 남성들의 경계지대 전략」, 『여/성이론』 제37호, 여이연, 2017.

다움이라고 명명되는 시절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재희는, 이제 이곳에 없다"[105]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 이 소설에서 가부장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의 변곡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성을 가부장제로 포섭하는 동시에 게이 남성을 정상가족의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때 가부장제가 여성의 삶에서 그 결정적인 생애 단계를 주조하는 순간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 사이에 만들어졌던 공통된 억압 경험과 연대의 역사는 마치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것인 양 보인다.

「재희」에서 드러나는 게이 남성과 헤테로 여성 사이의 연대 구도에는 물론 비평가들이 제시한 것처럼 남성 퀴어와 여성의 교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연구참여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게이와 여성의 고통을 경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남성 퀴어 중심적인 퀴어 담론과 이성애 중심적인 젠더 담론을 모두 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그러한 억압과 고통이 놓인 교차로를 보다 면밀하게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106] 예컨대 "어떤 여성으로 사는 것이 좆같고 어떤 게이로 사는 것이 좆같"은지에 대한 인식이 「재희」에 누락되어 있다는 D의 말은 '게이'와 '여성'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편하게 상상하면서 내부의 차이를 사상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이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재희」 읽기를 통해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자기변형이라는 문제에 각기 다르게 가 닿는다. 어떤 독자들은 「재희」에서 헤테로 여성과 게이 남성이 관계 맺는 하나의 구도를 발견한다. 이는 동성애자 남성과 이성애자 여성에 대한 공통된 억압의 근원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유익한 앎'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퀴어 이슈에 다소 무관심한 독자의 경우 이 텍스트에 대한 지배적 해독을 통해 새로운 자기진리를 생산하고 자기변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이나 여성과 게이 남성 간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진폭을 이미 자신의 경험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독자의 경우, 게이와 여성에 대한 기지의 억압을 단순화하는 이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자기변형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연구참여자들 다수는 이 소설에 대해 저항적 해

105 박상영, 「재희」, 『대도시의 사랑법』, 68쪽.
106 김건형, 「비평의 젠더와 그 사적 패턴들이 지금」, 132쪽.

독을 보였는데, 교차성에 대한 이들의 예민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일련의 하위문화적 기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게이 정체성과 그 재현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반감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용자의 위치성에 따라 텍스트 해석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107]에 비추어 볼 때, 텍스트 읽기를 통한 수용자의 자기변형은 전혀 다른 질적 양상을 띨 수 있다.

「재희」와 다르게 교차하는 억압을 간파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힘의 근원으로서의 차이를 보존하는 해석과 관련해 눈여겨볼 작품은 「우럭」이다. 이 소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재희」와는 극명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 냈는데, 「우럭」이 퀴어 커뮤니티 내의 개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이 깊다.

> D　그 「우럭」은 새로웠어. (…) 반드시 한국이어야 하고 반드시 게이여야 하는 거가 그 운동권 선배, 아 이거는 고유하다. 그 캐릭터는 새로웠어. (…) 우리가 되게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분리할 수 있다고 치고 엮었을 때, 이거 두 개[NL과 게이]처럼 충돌하는 게 있을까? (…)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묘사가 약간 징그럽게 뭔지 알겠는 거. (…) 그 캐릭터 하나는 진짜 너무 건질 만하다. (…) 그리고 「우럭」에서 보이는 자기혐오와 자기애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도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진폭이 크고 그랬던. 발뺌할 수도 없게 사랑해 버린, 그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랑했는데 그냥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굉장히 흥미롭고 이상한 인물을 알게 됐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빼도 박도 못 하게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간 지점에 섰을 때의 풍경. 아 좋았다 그거는. 진짜 숨도 안 쉬고 읽은 것 같고. (…) 생각해 보니까 「우럭」은 너무 잘 썼다. NL 게이의 탄생. 그 너무 끔찍한 혼종 아니냐, 진짜로?

D는 「우럭」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분열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를 중요한 특

107 스튜어트 홀, 앞의 책; 이엔 앙, 박지훈 역, 『댈러스 보기의 즐거움』, 나남, 2018 참고.

징으로 꼽는다. 특히 D는 “반드시 한국이어야”만 가능한, “끔찍한 혼종”이라고 표현되는 NL 게이 캐릭터가 가진 고유성에 주목한다. 이 NL 게이 남성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분열적 에너지와, 동성애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체화한 ‘나’가 그러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관계의 내적, 정동적 분열은 오늘날 다층적인 정체성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공감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E 역시 이 인물들의 연애 관계가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파열적인 불안함에 공감을 나타냈으며, F는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소설에서 모종의 기시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 E 「우럭」에서 되게 매달리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인상적이었어. 나의 되게 뜨거운 조각들을 그 사람에게 줬었다, 이런 표현들이 난 좋았던 것 같애. 어쨌든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내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가는데, 어린 친구가 자기의 되게 뜨거운 부분을 이 사람에게 줬다, 이런 자기 객관화 과정이라고 할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들이 되게 성장소설 같은 느낌이었고.

> F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우럭」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미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첫사랑 그런 느낌인데 진짜 개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너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이니까. 사실 전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시감이……. 어, 되게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시 보면서. 제가 이성애 연애가 주제가 되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되게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이런 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퀴어를 보게 되면 어쨌든 내 경험이랑 맞닿아 있는 게 있어서 더 피부로 느껴지고. 뭐 예를 들어 그냥 똑같이 스킨십 묘사하는 건데도 좀 다른 거 같애요.

「우럭」은 퀴어 주체가 흔히 가지게 되는 중층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서사를 제시하면서도, 주체의 분열과 특이성을 지독하게 묘사한다. D는「우

럭」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층적인 정체성 묘사를 두고 "이거 두 개처럼 충돌하는 게 있을까? 그 장력으로 나를 찢어 놓을 것 같은"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시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데, D를 비롯한 퀴어인 연구참여자들 다수는 앞서 종로나 이태원의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한 게이 형상의 규범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부정적 인상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D의 진술이나 F의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시감이" 들었다는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우럭」의 인물이 갖는 자기분열적 특성, 달리 말해 주체의 근원적인 탈동일시적 특성은 역설적이게도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일시의 계기가 된다. 독자에게 있어서 이성애규범적 권력관계 내에서 퀴어 섹슈얼리티의 저항적 주체화는 성소수자 주체의 특정한 형상보다 그러한 주체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열적인 특성에 더욱 관련하기 때문이다. 「우럭」의 인물은 연구참여자들의 퀴어한 주체성과 상응하진 않지만 인물이 외적인 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면서 주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일시된다. 즉, 독자는 소설을 통해 "주체가 갈라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수고, 자신의 동일성을 잃게 되는 경험"[108]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자기배려의 주체화를 위해서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끊임없이 수행되는 자기 변형이 요청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우럭」은 기지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주체화의 지난함을 충분히 복잡하게 제시하기에 독자가 자기와 새롭게 관계 맺는 계기로서 뛰어난 텍스트로 보인다.[109] 「우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호평은 독자가 독서 실천에서 자기변형을 하나의 실존 미학으로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타자의 인도와도 강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 독자는 모종의 규범성/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즉 자신의 위치성에 맞물린 자기 진실을 생산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진리가 독자 자신에게 되먹임되면서 독자는 그러한 진리를 타자를 향해 다양하게 담론화하거나 실천하

108 Michel Foucault, "Entretien avec Michel Foucault, 1980," *Dits et écrits, vol. II, "Quarto"*, Paris: Gallimard, 2001; 다케다 히로나리, 김상운 역, 『푸코의 미학』, 현실문화, 2018, 207쪽에서 재인용.

109 미셸 푸코, 「자기 수양」,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123쪽.

게 된다. 푸코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는 파레시아스트와 유사한, 즉 '비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개연성이 있다.[110]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푸코가 어디선가 지적한 것처럼 비판과 투쟁, 그리고 치료의 역할을 갖는 자기배려가 독자가 문학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자의 읽기 실천이 피스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반대적 힘을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맞서 이분법 사이에 다종다양한 담론을 틈입시키는 비판적인 문화정치적인 힘을 지닌다는 사실 역시 이끌어내게 된다.[111]

6 나가며

이 연구는 두 연구자의 사적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당시 언론 기사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을 만큼 화제를 모았던 박상영의『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감상을 단순하게 나누었는데, 이내 각자 주변의 다른 독자들에게 전해 들었던 반응이 평단의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독자들의 읽기 실천과 그 의미는 어디로 용해되어 버린 것일까? 우리는 취미로 독서를 즐기는 이른바 '대중 독자'의 '읽기'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태 누락되어 온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퀴어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동시대 퀴어 정치 및 대중 행위자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사고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실제 독자의 누락은 반드시 채워져야 할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상이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두 연구자는 각자의 분과학문 영역에서 이것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단순히 추가적인 연구 영역의 경험적 분석을 내놓는 것을 넘어 이 문제의식을 더 많은 학제적 연구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까

110 이상길,「이중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서의 고백」. 이상길에 따르면 푸코의 파레시아 개념은 그의 니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 "니체가 언젠가 말했듯이, 이제 관건은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90쪽)이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생산하면서 주체는 그러한 진실과 관계 맺는 윤리적 주체로 변화한다. 이러한 주체는 관계 맺은 진실에 일정하게 복속되어 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을 수행할 개연성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주체에게 진실이란 아는 것보다 '견뎌내는 것'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111 피스크, 앞의 책.

지 심화시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대중 독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담론화하기 위해 문학연구와 미디어문화연구의 보다 진전된 학제적 시도를 감행하기로 했고, 이 연구는 바로 그 결과물이다. 우리는 우선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기존의 비평을 검토하고 다수의 비평들에서 독자가 끊임없이 호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평가의 '스콜라적 관점'[112]에 의해 상상된 독자에 불과하며 실제 독자들의 읽기 실천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오늘날 한국(제도)문학의 내외부적 변화, 특히 퀴어/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소설들을 둘러싼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설 역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쏟아 온 문화연구의 관심 영역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평단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질적 수준과 일정한 진보적 텍스트성이 담보된 소설의 경우라도, 이론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전개되어 온 수용자 연구 전통에 따르자면 진보적 텍스트에 대한 진보적 독자들의 읽기 역시 무한한 의미 투쟁의 장이다. 따라서 실제 독자들의 읽기와 의미실천을 담론화함으로써 문학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박상영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문화정치적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독자들을 실제로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수용자 연구 전통에 입각해 분석했다. 여기에는 퀴어 텍스트가 불가피하게 놓이는 현실적인 문화정치적 구도, 즉 해체의 대상으로서 이성애규범성과 정치적 주체로서의 퀴어 당사자라는 구도가 있다. 특히 게이 하위문화적 기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의 경우 퀴어 당사자 독자와 헤테로 독자 사이의 읽기 경험이 상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는 이때 퀴어 당사자가 퀴어 소설 읽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름의 정치적인 상상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독자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미실천(들)을 충분히 이론화/담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독자들의 의미실천을 쾌락적 독해와 비판적 독해라는 두 측면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박상영의 소설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뛰어

112 피에르 부르디외, 김웅권 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난 재미와 가독성을 통해 전형적인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성애자 독자들은 대개 접해본 적 없는 게이 하위문화와 게이 주체의 일상의 특수성이나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즐거움을 논한다. 한편 이러한 하위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퀴어 인물을 대중매체가 아니라 한국 동시대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제도)문학을 통해 마주하는 데서 오는 모종의 쾌감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대도시의 사랑법』이 제시하는 게이 하위문화의 재현에 내재된 게이 종족성이 헤테로 독자들에게 가져오게 될 담론적 효과를 우려한다. 하위문화적 기호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는 규범적 게이 형상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독자들이 이 소설집에서 「우럭 한점 우주의 맛」에 대해 두드리진 호평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소설 텍스트는 게이 캐릭터의 지난한 퀴어 주체화 과정을 타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분열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충분히 복잡하게 그려낸다. 독자들은 이 소설 텍스트에 나타나는 '탈동일시를 통한 주체화'로부터 자기 자신의 의미/진리를 생산하고 그 공감을 통해 자기변형적 과정의 즐거움을 느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텍스트와 각자 상이하게 관계 맺고 있으며 텍스트 읽기 자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비판적 독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새롭게 관계 맺는 자기배려 실천의 즐거움을 요청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바로 여기에 대중 독자들의 텍스트 읽기와 의미실천이 갖는 문화정치적 함의가 있다. 피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 생산물은 재료에 불과하며 이 재료를 의미로, 쾌락으로, 문화로 바꾸는 것은 수용자가 해내는 일이다. 퀴어 정치의 헤게모니를 이루는 핵심적 행위자로서 '퀴어 대중'을 상정한다면, 독자들이 만들어 내는 의미에서 저항적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실천적 행위자로서의 독자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성을 만들어 내는 독자의 읽기와 의미실천은 고도로 훈련받은 비평가가 제시하는 해석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재차 반복하지만, 비평에게는 억압받는 퀴어의 삶을 살 만한 것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질문할 의무가 있다. 실제 독자의 수용 양상은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비평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_____,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단행본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28-52쪽.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211-258쪽.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14, 1-564쪽.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1-336쪽.

다케다 히로나리, 김상운 역, 『푸코의 미학』, 현실문화, 2018, 1-317쪽.

더글러스 크림프, 김수연 역, 『애도와 투쟁』, 현실문화, 2021, 1-456쪽.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276-283쪽.

미미 마리누치, 권유경·김은주 역, 『페미니즘을 퀴어링!』, 봄알람, 2018, 1-260쪽.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1-575쪽.

_____, 오르트망 심세광·전혜리 역,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동녘, 2016, 37-124쪽.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2015, 415-436쪽.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역,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 234-287쪽.

오드리 로드, 주해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1-368쪽.

이엔 앙, 박지훈 역, 『댈러스 보기의 즐거움』, 나남, 2018, 1-232쪽.

존 피스크, 곽현주 역, 『텔레비전 문화』, 컬처룩, 2017, 1-639쪽.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16, 1-372쪽.

_____,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1-431쪽.

피에르 부르디외, 김웅권 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1-365쪽.

_____,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1-509쪽.
Edelman, Lee, *No Futur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1-32.
Halberstam, Judith, *In a Queer Time and Pla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p.1-46.
Hall, Stuart, *Cultural Studies 1983*,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5-24.
Jenkins, Henry, *Textual Poachers*, London: Routledge, 1992, pp.1-346.
Muñoz, Jose Esteban, *Cruising Utopi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pp.1-18.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1-244.

논문

강지희, 「멜랑콜리 퀴어 지리학」,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310-335쪽.
김건형, 「'퀴어 신파'는 왜 안 돼?」, 『크릿터』 제2호, 민음사, 2020, 18-31쪽.
_____, 「2018, 퀴어 전사」, 『문학동네』 제25권 제3호, 문학동네, 2018, 358-387쪽.
_____, 「비평의 젠더와 그 사적 패턴들이 지금」, 『문학동네』 제27권 제2호, 문학동네, 2020, 118-133쪽.
_____, 「소설의 젠더와 그 비평 도구들이 지금」, 『문학과사회』 제32권 제3호, 문학과지성사, 2019, 25-47쪽.
_____, 「알려지지 않은 농담의 역학과 예술가의 이름」, 『문학과사회』 제31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18, 210-218쪽.
_____, 「지금, 교차하는 퀴어 서사들이 여는 시간」, 『문학동네』 제26권 제4호, 문학동네, 2019, 104-127쪽.
김건형 외, 「계간평」, 『문학동네』 제26권 제2호, 문학동네, 2019, 516-541쪽.
김경숙, 「윤동주 시의 '독서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호,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7-46쪽.
_____,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독서의 사회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201-237쪽.
김나영·김봉곤·박연준,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제47권 제3호, 창비, 2019, 378-405쪽.
김미정, 「아리아드네의 실」, 『문학과사회』 제32권 제2호, 문학과지성사, 2019, 5-23쪽.
김미지, 「식민지 조선의 '소녀' 독자와 근대·대중·문학의 동시대성」, 『대중서사연구』 제20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4, 7-35쪽.
김세화·최숙기,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판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의미 구조 분석」, 『독서연구』 제56호, 한국독서학회, 2020, 35-63쪽.
김수정, 「수용자 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언론과 사회』 제18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10, 2-46쪽.
김승환,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론총』 제7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445-470쪽.
김영미, 「무의미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국제어문』 제32호, 국제어문학회, 2004, 115-142쪽.
김예란, 「소녀성과 육체의 미디어화」, 『미디어, 젠더 & 문화』 제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8-40쪽.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제13호, 상허학회, 2004, 245-276쪽.
김요섭, 「한국문학장의 뉴노멀과 독자 문제」, 『반교어문연구』 제58호, 반교어문학회, 2021, 303-332쪽.
김윤정, 「퀴어 소설에 나타난 가족 갈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237-269쪽.
김응교, 「윤동주에 대한 기억」,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319-358쪽.
김재경, 「최인호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59-92쪽.
김진이,「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17, 605-634쪽.
김천혜,「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독일어문학』 제8호, 한국독일어문학회, 1998, 231-252쪽.
노지승,「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장의 재편」,『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345-375쪽.
_____,「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현대소설연구』 제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01-135쪽.
노태훈,「깨어 있는 꿈」, 박민정 외,『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8, 325-331쪽.
박인기,「독서문화의 형성과 비평의 작용」,『독서연구』 제24호, 한국독서학회, 2010, 9-49쪽.
박인성,「얄팍하고 한갓된 세계로의 귀환」,『문학과사회』 제31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18, 21-44쪽.
백종륜,「한국 근대 퀴어 서사의 계보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231쪽.
_____,「한국, 퀴어 문학, 역사」,『여/성이론』 제41호, 여이연, 2019, 151-167쪽.
성현아,「이차원의 사랑법」,『조선일보』, 2021.01.01.
소영현,「퀴어의-비선형적인, 복수의-시간」,『크릿터』 제1호, 민음사, 2019, 74-95쪽.
손정수,「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교육적 의미」,『반교어문연구』 제49호, 반교어문학회, 2018, 135-164쪽.
오현숙,「『동아일보』 통계로 본 1930년대 아동과 청년 독자의 책 읽기」,『구보학보』 제28호, 구보학회, 2021, 385-430쪽.
오혜진,「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문화과학』 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83-105쪽.
윤경희,「어떻게 독자 세계가 될 것인가」,『문학3』 제3호, 창비, 2017, 58-71쪽.

이경, 「밀레니‘을’들이 사는 법」, 『오늘의 문예비평』 제116호, 오늘의문예비평, 2020, 41-58쪽.
이경림, 「‘근대’의 체감」, 『구보학보』 제28호, 구보학회, 2021, 275-310쪽.
이상길, 「미시권력 대 미시저항」, 『인문예술잡지 F』 제13호, 문지문화원 사이, 2014, 19-103쪽.
_____,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서의 고백」, 『언론과 사회』 제27권 제3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19, 61-104쪽.
이순영,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제1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311-340쪽.
이연승,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본 오규원 시 연구」, 『어문연구』 제81호, 어문연구학회, 2014, 209-235쪽.
_____, 「해체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어문연구』 제71호, 어문연구학회, 2012, 369-392쪽.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제4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3-76쪽.
이은정,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한국시학연구』 제13호, 한국시학회, 2005, 219-244쪽.
이정연·이기형, 「칙릿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 사회』 제17권 제2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09, 87-138쪽.
이주라, 「삼중당의 하이틴로맨스와 1980년대 소녀들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9, 67-99쪽.
이철주, 「표정 없이 실패한 울음들의 기록」, 『릿터』 제15호, 민음사, 2018, 190-194쪽.
이형권, 「이육사 문학의 독자와 기대지평의 문제」, 『한국언어문학』 제85호, 한국언어문학회, 2013, 395-421쪽.
인아영, 「시차와 시차」, 『문학과사회』 제32권 제3호, 문학과지성사, 2019, 5-24쪽.
_____, 「항상 나와 함께 있어줘」,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2019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 2019, 169-175쪽.

인아영 외, 「독자를 다시 생각한다」, 『문학동네』 제26권 제4호, 문학동네, 2019, 128-155쪽.
임동현, 「직장 내 남성 동성사회와 게이 남성들의 경계지대 전략」, 『여/성이론』 제37호, 여이연, 2017, 178-210쪽.
임진하, 「보편을 분유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읽기」, 『여성문학연구』 제5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51-283쪽.
임현순,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 『한국시학연구』 제22호, 한국시학회, 2008, 303-341쪽.
정기철,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독자」, 『독서연구』 제16호, 한국독서학회, 2006, 31-53쪽.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40쪽.
조혜영, 「트랜스내셔널 퀴어 정체성의 다중적 시간과 (비)가시성」, 『여/성이론』 제22호, 여이연, 2010, 203-219쪽.
채웅준·김선기, 「학제적 분과학문으로 문화연구 다시 쓰기」,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158-210쪽.
천경록,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제10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7-35쪽.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 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제13호, 한국독서학회, 2005, 209-235쪽.
_____, 「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 (1)」, 『반교어문연구』 제43호, 반교어문학회, 2016, 13-39쪽.
최숙기,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여성 독자와 남성 독자의 반응 양상 및 읽기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독서연구』 제48호, 한국독서학회, 2018, 165-201쪽.
최윤정, 「소설이라는 스탠드 업 코미디」, 『실천문학』 제131호, 실천문학사, 2019, 215-220쪽.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37호, 호남문화연구소, 2005, 207-231쪽.

한　계,「퀴어가 특수하지 않은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자음과모음』 제45호, 자음과모음, 2020, 333-346쪽.
허　윤,「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문학과사회』 제31권 제2호, 문학과지성사, 2018. 38-55쪽.
황종연 외,「심사평」, 박상영 외,『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9, 367-390쪽.
황현경,「소설이라는 형식」,『문학동네』 제25권 제1호, 문학동네, 2018, 431-448쪽.
_____,「필드와 데스크」,『자음과모음』 제40호, 자음과모음, 2019, 212-248쪽.

웹자료

김형중,「이 계절의 소설 선정의 말」, 문학과지성사 블로그, 2017; http://moonji.com/monthlynovel/14018/ (접속일: 2020.06.27).
담·여름,「엄살원 1화」, 엄살원 홈페이지, 2021;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VFkI5HuFQyCT311_shbIpgH2NKTTFg (접속일: 2021.10.12.)
박상영·이경진,「이 계절의 소설 인터뷰」, 문학과지성사 블로그, 2017; http://moonji.com/monthlynovel/14018/ (접속일: 2020.06.27).
오혜진,「'퀴어 판타지'를 발명하는 영광」, 핀치, 2019; https://thepin.ch/think/p7nu3/daydream-7 (접속일: 2020.05.11).
전기화,「내가 나의 실패에 대해 말하겠다」,『문장 웹진』, 2018;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3205 (접속일: 2020.06.27).
조대한,「항, 돌아온 혹은 떠나간 사랑」,『웹진 문화 다』, 2019; http://www.munhwada.net/home/m_view.php?ps_db=letters_ko&ps_boid＝226&ps_mode＝ (접속일: 2020.06.23)

Abstract

Who are the Readers of Queer Literature and Criticism?

: The Audience's Signifying Practices and Cultural Politics in *Love in the Big City*

Baek Jong-Ryun · Lim Donghyeon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a new epistemology of queer literary criticism that is constantly renewed by readers' diverse signifying practices. During the queer/feminist reorganization of the literary field—which began in approximately 2017 and 2018 and continues to the present—criticism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ders. Now, readers are referred to as subjects who are reforming existing literature and creating its future. Some recent works of queer literary criticism, however, have been somewhat insufficient to translate readers' actual reading experiences into the language of criticism despite claiming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the reader on a theoretical level. This article examines the figure of the reader as imagined by contemporary queer literary criticism and attempts an interdisciplinary experiment that incorporates in-depth interview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ader theory without readers," which describes a trend in the Korean literary field to fail to recognize actual readers. We emphasize that Korea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scholars have not fully considered the "audience" of the novel, and, in this context, we specifically analyze readers' receptions of Park Sang Young's stories in *Love in the Big City* and their cultu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eterogeneous reading practices of readers who possess various experiences and identiti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self-transformation through literary texts, breaking away from the practice of reaffirming familiar forms of oppression.

Key words: Queer, queer literature, reader, audie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Park Sang Young, *Love in the Big City*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